

器興 舊葛(3) 宅地開發豫定地區内
遺蹟 緊急試掘調査 報告書

金武重
丁海得
兪炳隣

2000

畿 甸 文 化 財 研 究 院
京 畿 地 方 公 社

目 次

I. 머 리 말	5
II. 주변환경	7
1. 위치 및 자연지리적 환경	7
2. 고고학적 환경	9
III. 조사경과 및 방법	11
1. 조사경과	11
2. 조사방법	11
IV. 층위 및 조사내용	12
1. 층위	12
가. A지점	12
나. B지점	17
다. C지점	17
라. D지점	17
2. A지점 조사내용	21
가. A-I 구역	
(1) 주거지	21
(2) 저장공	21
(3) 옹관	28
나. A-II 구역	
(1) 주거지	31
(2) 저장공	31
V. 맺 음 말(조사결과)	33

圖 面 目 次

도면 1. 조사지역 위치도(1)(1/25,000)	6
도면 2. 조사지역 위치도(2)(朝鮮總督府, 1917, 『近世五萬分之一地形圖』)	8
도면 3. 주변지역 유적분포도(1/50,000)	10
도면 4. A지점 시굴조사 위치도(1/5,000)	12
도면 5. A-I 구역 S0-S5E2 트렌치 층위도(북동벽)	13
도면 6. A-I 구역 S2-S3E2 확장 피트 층위도(북동벽)	15
도면 7. A-II 구역 트렌치 층위도(①: S5E2 서벽, ②: S6E2 서벽, ③: S4E2 북벽)	16
도면 8. B지점 시굴조사 위치도(1/5,000)	17
도면 9. C지점 시굴조사 위치도(1/5,000)	18
도면 10. D지점 시굴조사 위치도(1/5,000)	18
도면 11. B·C·D지점 시굴 트렌치 층위도	19
도면 12. A지점 측량도 및 유구배치도(1/500)	20
도면 13. A-I 구역 S2-S3E2 확장 피트 평면도	23
도면 14. A-I 구역 트렌치 평면도(①: S2E2, ②: S3E3, ③: S1E0)	24
도면 15. A-I 구역 트렌치 평면도(①: S2E0, ②: S3E1, ③: S3E2)	26
도면 16. A-I 구역 출토 옹관 평·단면도	29
도면 17. A-II 구역 트렌치 평면도(①: S1E1, ②: S5E2, ③: S6E2, ④: S0E2)	30
도면 18. A-II 구역 트렌치 평면도(①: S2E0, ②: S2E1, ③: S3E1)	32

사 진 目 次

사진 1. A지점 전경	36
사진 2. A지점 작업광경	36
사진 3. B지점 전경	37
사진 4. B지점 트렌치 조사 후 전경	37
사진 5. C지점 전경	38
사진 6. C지점 트렌치 조사 후 전경	38
사진 7. D지점 전경	39
사진 8. D지점 트렌치 조사 후 전경	39
사진 9. A-I 구역 1·2호 주거지 중복상태	40

사진 10. A-I 구역 1호 주거지 토층 단면	40
사진 11. A-I 구역 S2-S3E2 확장 피트 유구 노출상태	41
사진 12. A-I 구역 3·4호 주거지 노출상태	41
사진 13. A-I 구역 6호 주거지 굴광선 노출상태	42
사진 14. A-I 구역 7호 주거지 유물 노출상태	42
사진 15. A-I 구역 8·9호 주거지 노출상태	43
사진 16. A-I 구역 9호 주거지 유물 노출상태	43
사진 17. A-I 구역 11호 주거지·옹관 노출상태	44
사진 18. A-I 구역 1호 저장공 노출상태	44
사진 19. A-I 구역 2호 저장공 노출상태	45
사진 20. A-I 구역 3·4호 주거지 노출상태	45
사진 21. A-I 구역 3호 저장공 노출상태	46
사진 22. A-I 구역 5·6·7호 저장공 노출상태	46
사진 23. A-I 구역 8·9·10·11호 저장공 노출상태	47
사진 24. A-I 구역 10호 저장공 굴광선 노출상태	47
사진 25. A-I 구역 옹관 노출상태	48
사진 26. A-I 구역 옹관 조사 후 노출상태	48
사진 27. A-II 구역 1호 주거지 노출상태	49
사진 28. A-II 구역 2호 주거지 노출상태	49
사진 29. A-II 구역 3호 주거지 노출상태	50
사진 30. A-II 구역 3호 주거지 굴광선 노출상태	50
사진 31. A-II 구역 1호 저장공 노출상태	51
사진 32. A-II 구역 2호 저장공 노출상태	51
사진 33. A-II 구역 3호 저장공 노출상태	52
사진 34. A-II 구역 4호 저장공 노출상태	52
사진 35. A-I 구역 S2E1 트렌치 출토유물	53
사진 36. A-I 구역 S2E2 트렌치 출토유물	53
사진 37. A-I 구역 S2-S3E2 확장 피트 출토유물	54
사진 38. A-I 구역 S2-S3E2 확장 피트 출토 기와	54
사진 39. A-I 구역 S3E2 트렌치 출토유물	55
사진 40. A-II 구역 3호 주거지 출토유물	55
사진 41. A-I 구역 출토 옹관	56
사진 42. A-I 구역 출토 옹관(남관)	56
사진 43. A-I 구역 출토 옹관(북관)	57
사진 44. A-I 구역 출토 옹관(북관 바닥)	57

I. 머리말

경기지방공사에서는 용인시 기흥읍 구갈리, 구성면 상하리 일대의 약 290,000평에 대한 택지개발사업을 추진하던 중, 명지대학교박물관에 의뢰하여 사업지구내의 문화유적 지표조사를 1996년 11월부터 1997년 1월까지 실시하였다.¹⁾ 조사결과 A(무문토기산포지), B(백자산포지) 2개 지점에 대해서 매장문화재의 징후가 있음을 보고하였다.

그러나 지표조사 이후 사업 추진 지연으로 인해 시굴조사가 곧바로 실시되지 못한 채 3년여의 시간이 경과한 뒤인 2000년 6월 20일 시굴조사를 의뢰하여 왔다.

이에 우리 연구원에서는 명지대학교 박물관의 지표조사 결과를 토대로 사업지구 및 주변에 대한 사전조사와 문헌조사를 실시하였다. 그 결과 유적의 징후가 있을 것으로 판단되는 상하리 지석묘 인근의 신갈천과 안산천이 합류하는 충적지 2개소를 추가하여 모두 4개소 약 8,000평을 시굴조사 대상지역을 선정, 조사계획서를 제출하였다. 2000년 8월 2일 문화재청으로부터 시굴조사 허가를 받아 2000년 8월 23일부터 현장조사에 착수하였다.

현장조사는 우기에 들어서야 착수할 수 있었고, 택지개발사업 승인이 나지 않은 상태에서 잡목제거를 할 수 없었으며, B·C지점에는 택지개발 공고 이후에 3~4m 높이로 쌓인 막대한 양의 토사로 작업에 많은 지장을 주었다. 또한 A지점의 민묘 개장 후 분묘에 설치되었던 석물을 다시 묻고 가는 등 지장물 철거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아 조사가 원활하지 못하였으나, 조사 막바지에 시행청과 시공사의 협조로 B·C지점의 토사를 제거하여 11월 15일까지 현장조사를 무난히 마칠 수 있었다. 조사단의 구성은 다음과 같다.

조 사 단 장 : 장 경 호 (기전문화재연구원 원장)

지 도 위 원 : 한 병 삼 (전 국립중앙박물관장, 문화재위원회 제6분과 위원장)

최 병 현 (숭실대학교 사학과 교수)

이 남 규 (한신대학교 국사학과 교수)

책임조사원 : 김 무 중 (기전문화재연구원 조사2팀장)

조 사 원 : 정 해 득 (" 조 사 원)

유 병 린 (" 조 사 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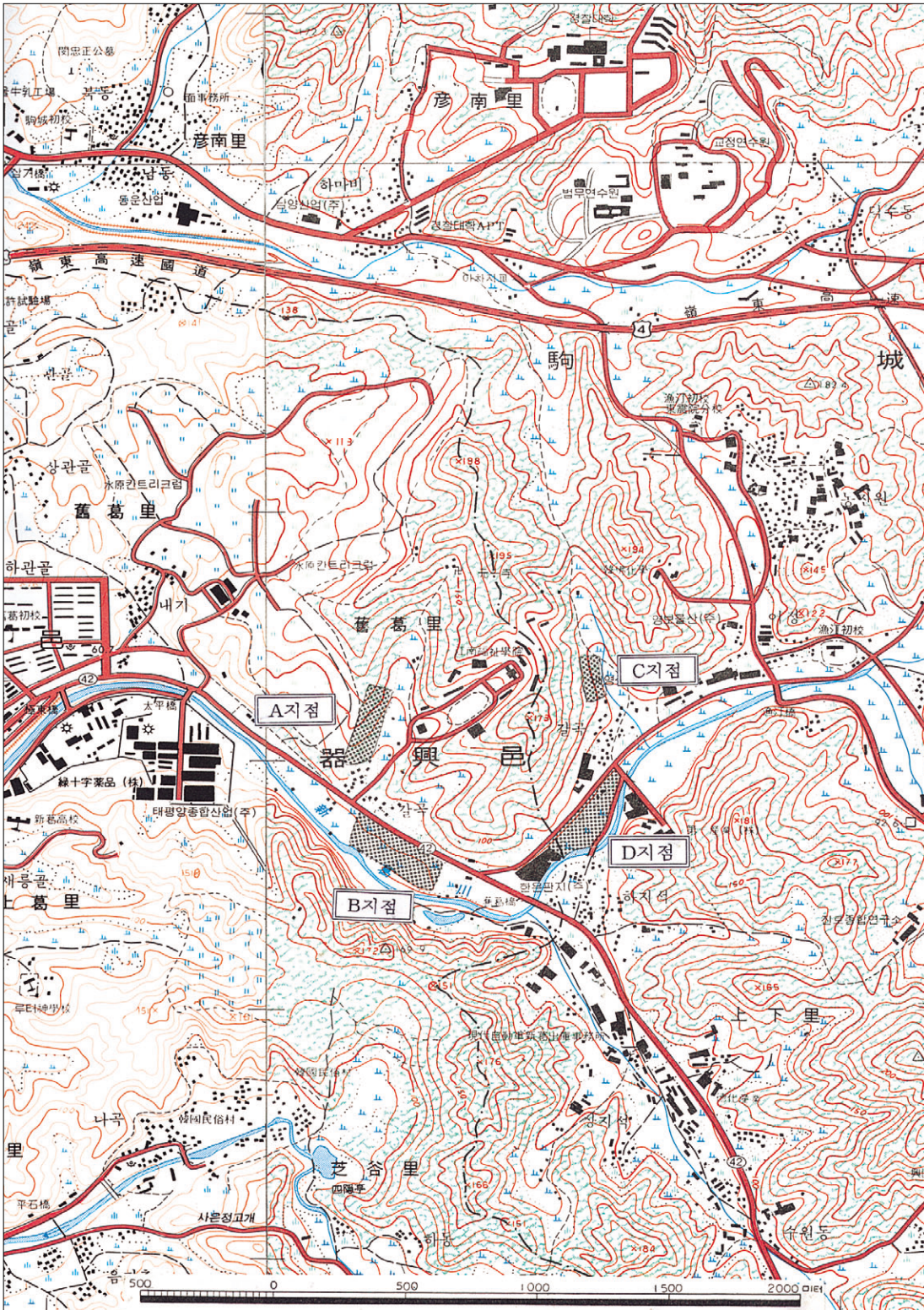
조사보조원 : 최 철 희 (한신대학교 대학원생)

이 석 재 (목포대학교 대학원생)

유 은 식 (숭실대학교 대학원생)

김 점 숙 (전북대학교 대학원생) 외

1) 명지대학교박물관·경기도 공영개발사업단, 1997, 『기흥 구갈3지구 문화유적 지표조사 보고서』, 서울 : 학연문화사.



도면 1. 조사지역 위치도(1)(1/25,000)

보고서의 작성에 있어서 원고는 정해득·유병린이 작성한 것을 장경호·김무중이 수정·가필하였으며, 도면 정리는 김점숙, 사진 정리는 유은식이 하였다. 전체적인 편집은 유병린·유은식이 하였으며, 최종적인 교열은 김무중·정해득이 하였다. 조사기간 동안 현장 여건을 감안하여 행정 처리를 도와주신 경기지방공사의 배도희 감독, 삼성건설·금강종합건설 관계자들에게 심심한 감사를 드린다.

Ⅱ. 주변환경

1. 위치 및 자연지리적 환경(도면 1·2)

조사지역은 행정구역상으로 경기도 용인시 기흥읍 구갈리, 구성면 상하리 일대로 동경 127°05'00"~127°10'00", 북위 37°16'00"~37°17'30"에 위치한다. 북쪽은 구성읍 언남리, 서쪽은 기흥읍 신갈리, 남쪽은 기흥읍 상갈리, 동쪽은 구성읍 동백리, 상하리와 인접하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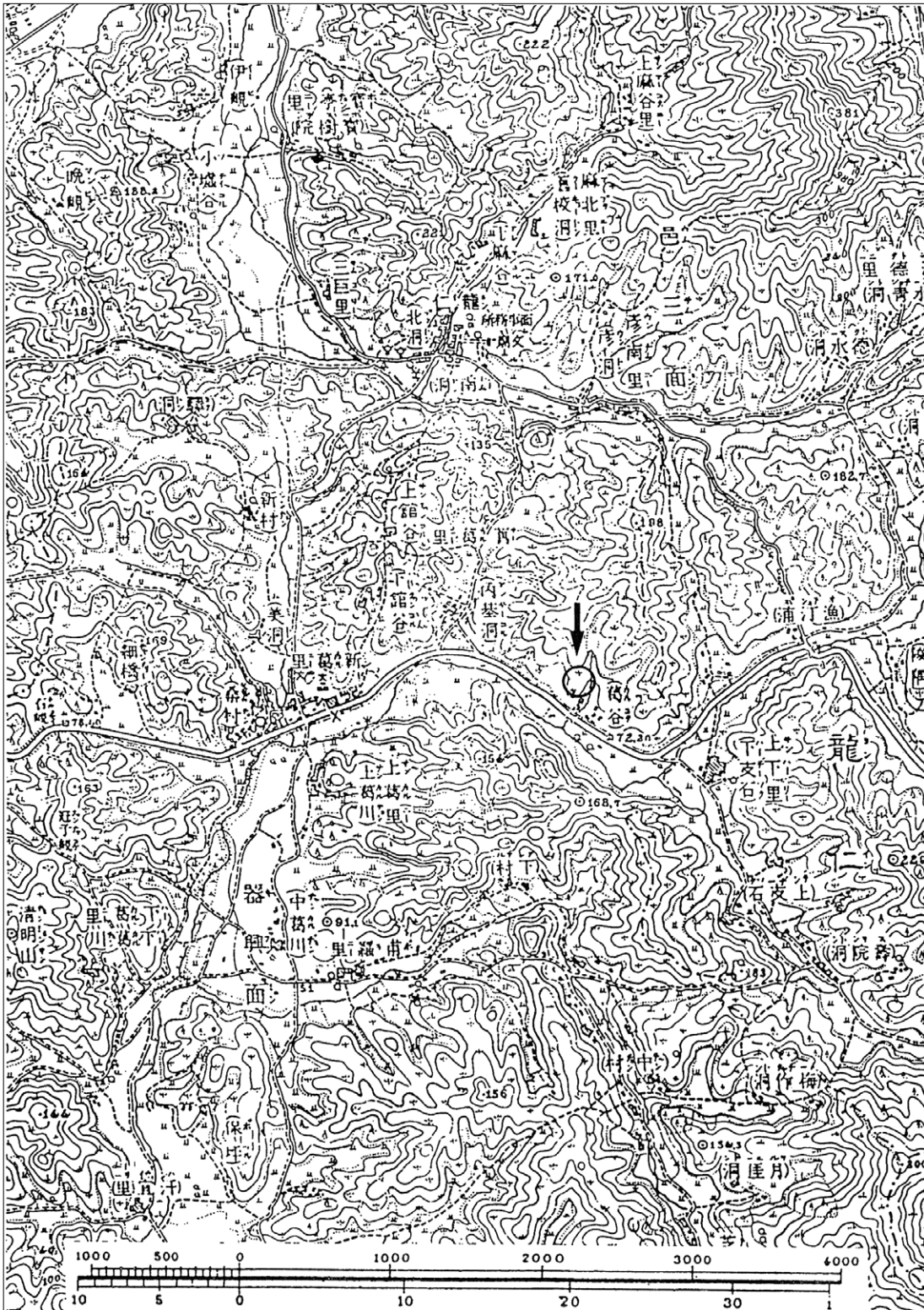
조사지역은 광주산맥에 속하는 용인 석성산(해발 471.5m)의 서쪽에 펼쳐진 낮은 구릉지대로서 과거 구성현에 속한다. 조사지역 북쪽은 해발 198~195m의 구릉성 산지가 있고 남동쪽의 신갈천(지곡천)과 남서쪽의 안산천이 합류하여 신갈저수지로 유입된다. 사업지구의 동서로 42번 국도가 놓여 있으며 강남대학교를 감싸안고 있다.

4개의 조사지점은 2지점이 구릉의 경사면에 위치하고 있으며, 2지점은 하천변의 충적대지이다. 강남대학교 서쪽의 구릉지대에 위치한 A지점은 시굴조사 전 북동사면이 금령김씨 세장지로서 분묘개장이 이루어진 상태였다. 남사면은 일부 지역이 밭으로 개간되어 경작되던 것으로 보이나 휴경상태였으며, 잡초가 약 1m이상 우거져 있었다. 구릉의 서쪽은 수원컨트리클럽 골프장과 접해 있다.

B지점은 강남대학교 맞은편, 42번 국도 남쪽의 신갈천과 안산천이 합류하는 충적지로 현재 소나무를 이식한 곳은 보상이 이루어지지 않아 조사가 불가능하였으며, 택지개발지구 선정과 함께 지상 건축물은 철거된 상태였으나 3~4m 높이의 토사가 쌓여 많은 어려움을 겪었다. 지표조사시에는 유적의 징후를 발견하지 못하였으나 인근 상하리 지석묘가 확인된 바 있고, 지형적으로 선사유적의 부존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판단되어 시굴조사에 포함시켰다.

C지점은 명지대학교에서 실시한 지표조사 결과 백자산포지로 보고된 지역으로 전체적인 지형은 서고동저의 양상을 띄고 있다. 173m의 서쪽 구릉과 194m의 동쪽 구릉으로 감싸여 있는 계곡부로 안산천의 북쪽에 해당된다. 밭으로 경작되던 지역이었지만 휴경상태가 지속되어 1m내외의 잡초가 우거져 있었다.

D지점은 일부 지역이 밭으로 경작되고 있었으며, 약 1m이상의 잡초가 우거져 있었다. 택지개발지역의 북동에서 남서로 흐르는 안산천변의 북안에 위치한 충적대지로 토질이 양호하여 B지점과 마찬가지로 선사유적의 부존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판단, 시굴조사에 포함시켰다.



도면 2. 조사지역 위치도(2)(朝鮮總督府, 1917, 『近世五萬分之一地形圖』)

2. 고고학적 환경(도면 3)

용인시에서 확인된 고고학적 자료를 간단히 살펴보면, 용인 지역의 구석기시대 유적은 거의 알려져 있지 않았으나 최근 그 존재가 부각되고 있다. 慕賢面 葛潭里의 고토양층에서 몸돌과 석기 등이 채집되었으며,²⁾ 양지면 평창리 구릉의 고토양층에서 다각면석기와 박편석기 등이 수습되어 보고된 바 있다.³⁾ 또한 이동면 부근에서도 찧개가 발견되었으나⁴⁾ 아직 금번 조사지역을 비롯한 용인의 서쪽지역에서는 유물이나 고토양층이 보고된 예는 없다.

용인 지역의 신석기시대 유적은 다른 시기의 유적에 비해 많이 확인되고 있지 않지만, 인근 상갈리에서 빗살무늬토기편이 출토되었다.⁵⁾

청동기시대와 관련된 유적은 현재까지 약 20개소 정도가 보고되었다. 마제석부는 포곡면 전대리, 내사면 정수리, 기흥읍 고매리, 외사면 백암리, 원삼면 두창리 등에서 발견되었으며, 마제석검은 포곡면 유운리, 모현면 왕산리, 이동면 화산리·덕성리, 남사면 창리와 봉명리, 용인읍 남리 등에서 나왔다. 마제석촉은 용인읍 남리, 원삼면 두창리의 황토재에서 수습되었다.⁶⁾ 또 1965년 경안천 유역의 모현면 초부리에서는 세형동검의 용범이 출토되었다.⁷⁾ 또한 최근 수지읍에 위치한 임진산성에서 반월형석도와 무문토기가 발견되었으며,⁸⁾ 수지읍 죽전리에서 청동기시대 주거유적이 보고된 예가 있다.⁹⁾

청동기시대에 유행했던 묘제인 지석묘는 북방식과 남방식이 모두 보고되고 있다. 북방식 지석묘는 모현면 왕산리, 내사면 주북리, 구성읍 상하리 그리고 남방식 지석묘는 원삼면 맹리, 외삼면 근삼리에서 보고되었다.¹⁰⁾

삼국시대 전기에 용인지역이 백제에 속했던 것은 확실하나 그에 관한 구체적인 문헌자료나 유적과 유물이 알려지지 않았지만, 최근에 수지읍에서 기원 후 4~5세기의 백제주거지가 조사되었다.¹¹⁾ 그리고 이 일대의 활발한 지표조사 중에 수지읍 성북리, 신봉리, 구성읍 마북리에서 백제토기가 보고된 바 있다.

2) 서울대학교 박물관, 1996, 『龍仁市の 文化遺蹟』.

3) 경기도박물관·서울대학교 고고미술사학과, 2000, 『龍仁 坪倉里 舊石器遺蹟 發掘調査報告書』.

4) 서울대학교 박물관, 주 2)의 전게서.

5) 명지대학교박물관 外, 1998, 『기흥 상갈지구 문화유적 시굴조사 보고서』.

6) 龍仁郡誌編纂委員會, 1990, 『龍仁郡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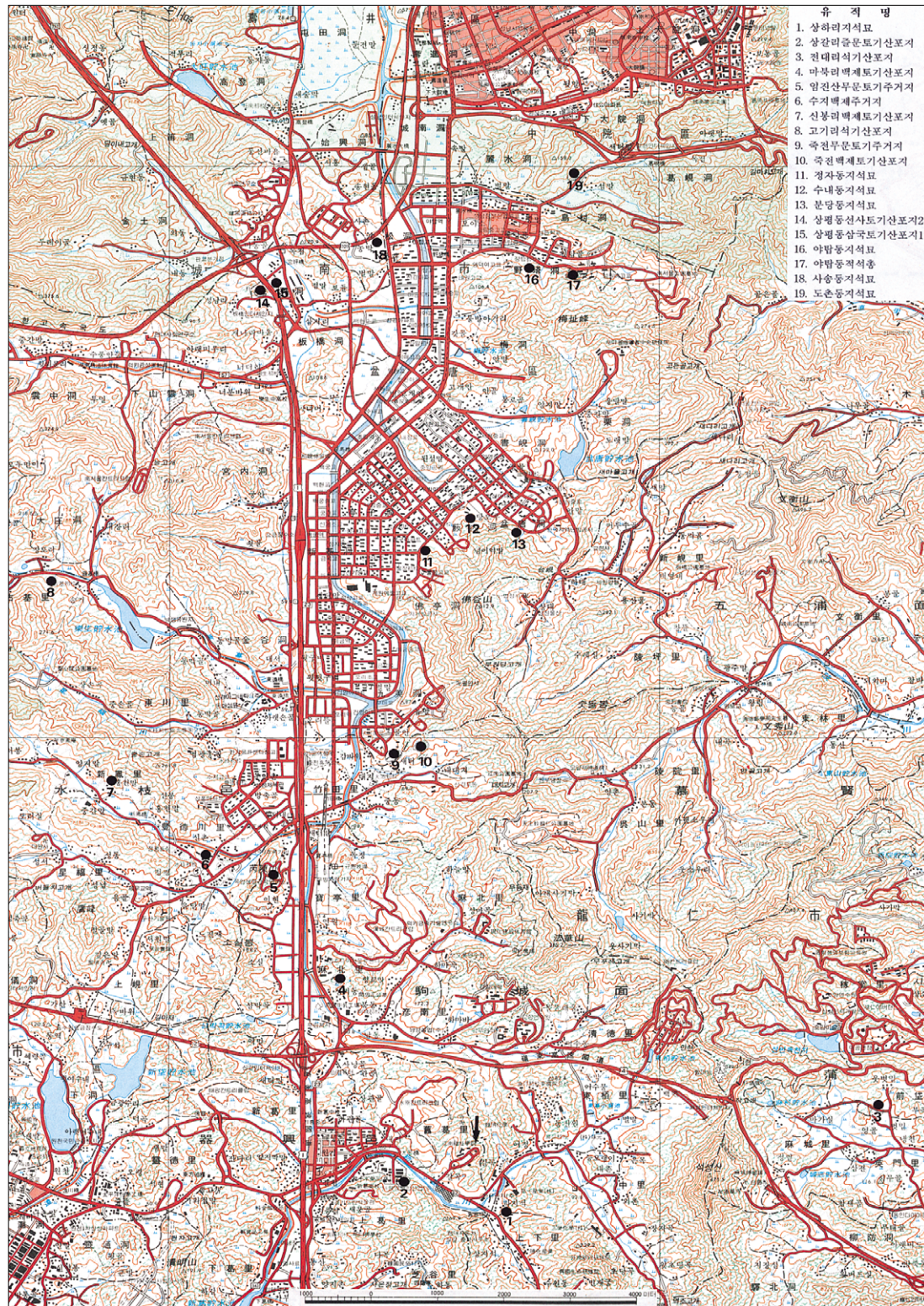
7) 金載元, 1965, 「龍仁出土 細形銅劍 鎔范」, 『李崇寧博士頌壽紀念論叢』, 李崇寧博士頌壽紀念論叢刊行委員會.

8) 백종오, 1997, 「용인 임진산 성지 긴급 발굴조사」, 『'97 京畿道 博物館 發掘調査 概報』, 京畿道博物館.

9) 京畿文化財團 附設 畿甸文化財研究院, 2000, 「龍仁 竹田 宅地開發豫定地區內 遺蹟 試掘調査 現場說明會議資料」.(油印)

10) 주 5)의 전게서.

11) 주 6)의 전게서.



도면 3. 주변지역 유적분포도(1/50,000)

Ⅲ. 조사경과 및 방법

1. 조사경과

2000년 6월 기흥 구갈(3) 택지개발예정지구에 대한 시굴조사를 의뢰받은 우리 연구원에서는 지표조사 결과를 토대로 사전조사 및 문헌조사를 2000년 6월말에 실시하였다. 우리 연구원의 지표조사 결과로는 A지점에서 당초의 시굴조사 지점 북측에서 상당량의 백제토기편과 분묘개장시에 노출된 주거지 유구선을 확인하였으며, 백자산포지는 유적의 징후가 확인되지 않았다. 그리고 유적의 징후가 있을 것으로 판단되는 층적지 2개소를 추가하여 당초 2지점에서 4지점으로 조사지점을 확대하였다. 이러한 지표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2000년 7월 시굴조사계획서를 제출하여 2000년 8월 2일 동 사업지구에 대한 시굴조사 허가를 받게 되었다.

2000년 8월 23일부터 시작된 시굴조사는 대상지역을 서쪽으로부터 A, B, C(지표조사 B지점), D 지구로 명명하여 실시하였다. 우선 주거유적이 확인된 A지점부터 트렌치를 설치하고 D, B, C지점 순으로 조사를 진행하였다.(도면 1 참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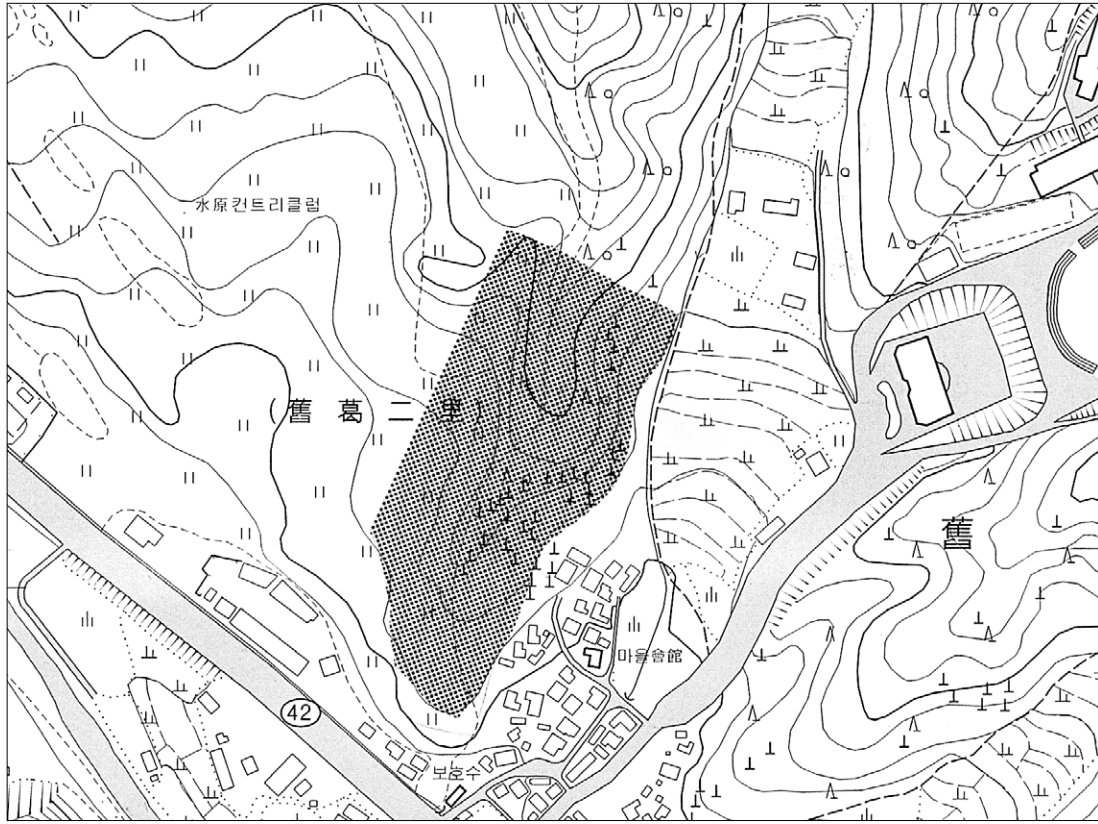
2. 조사방법

A지점은 민묘 개장시에 주거지 어깨선이 노출됨에 따라 주거지의 범위와 층위파악을 위해 한번 10m의 그리드내에 2×8m의 트렌치를 지형에 따라 설치하였다. 트렌치마다 유구가 확인되어 유구의 상부문화층까지 굴토하였다. 그러나 사업승인 이전에 조사가 진행됨에 따라 북쪽 구릉의 잡목을 제거할 수 없는 관계로 유적의 북쪽 경계를 확인하지 못하였다.

B지점은 상부의 북토층을 제거하고 구지표면을 확인한 후 주축방향(N - 46° - W)인 트렌치 3개를 30m 간격으로 구획하여 시굴조사를 실시하였다.

C지점은 지표의 잡목을 제거한 후 지형에 따라 주축방향(N - 85° - W)인 트렌치 10개(2×8m)를 20m 간격으로 구획하여 시굴조사를 실시하였다. 조사대상면적은 약 4,537평이다. 출토유물은 표토에서 수습된 근래의 도기·자기편뿐이다.

D지점은 지표의 잡목을 제거한 후 주축방향(N - 55° - W)인 트렌치를 80m 간격으로 구획하여 3개의 트렌치(길이 60m~100m)를 설치하였다. 조사면적은 약 1,000평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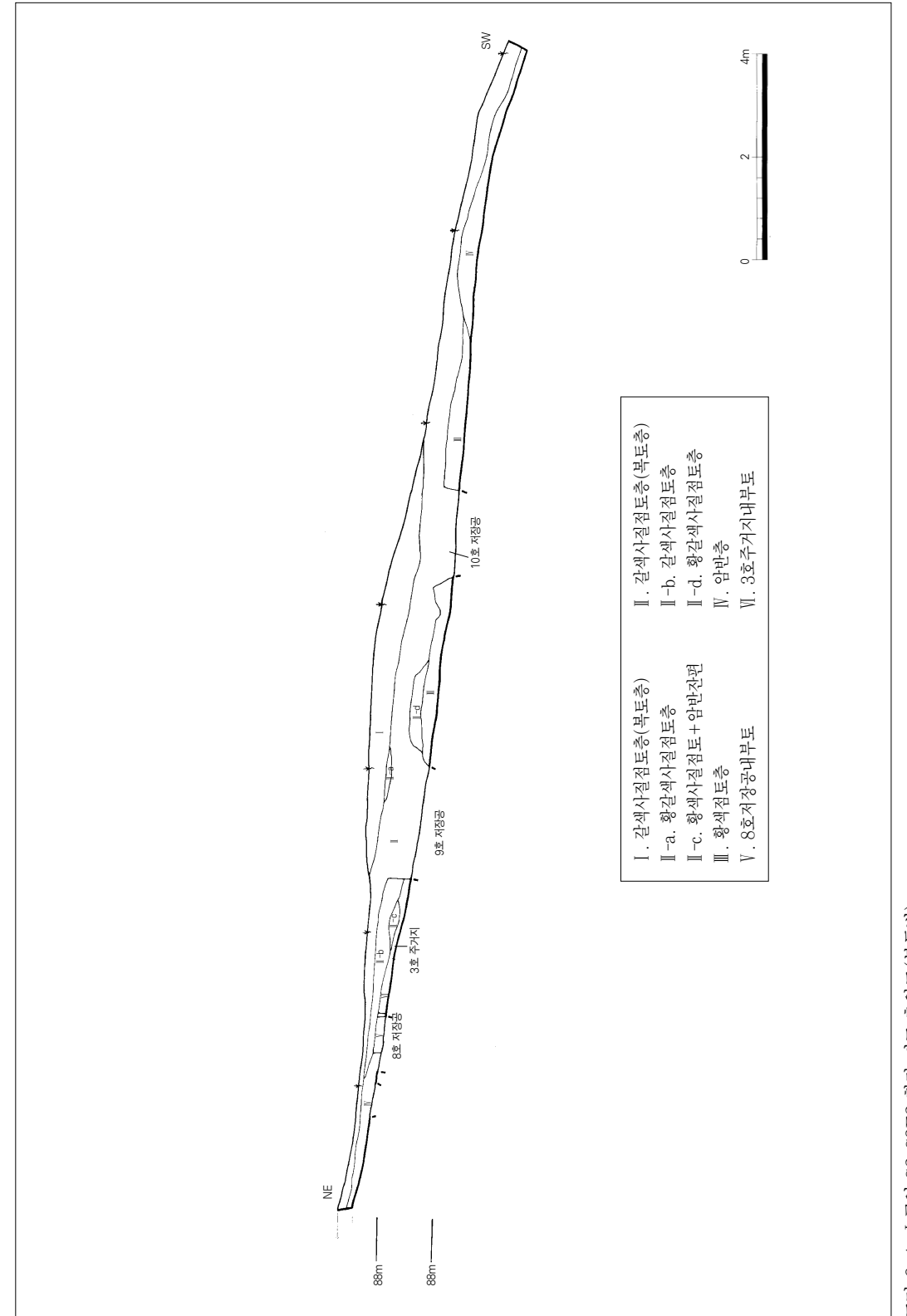
도면 4. A지점 시굴조사 위치도(1/5,000)

IV. 층위 및 조사내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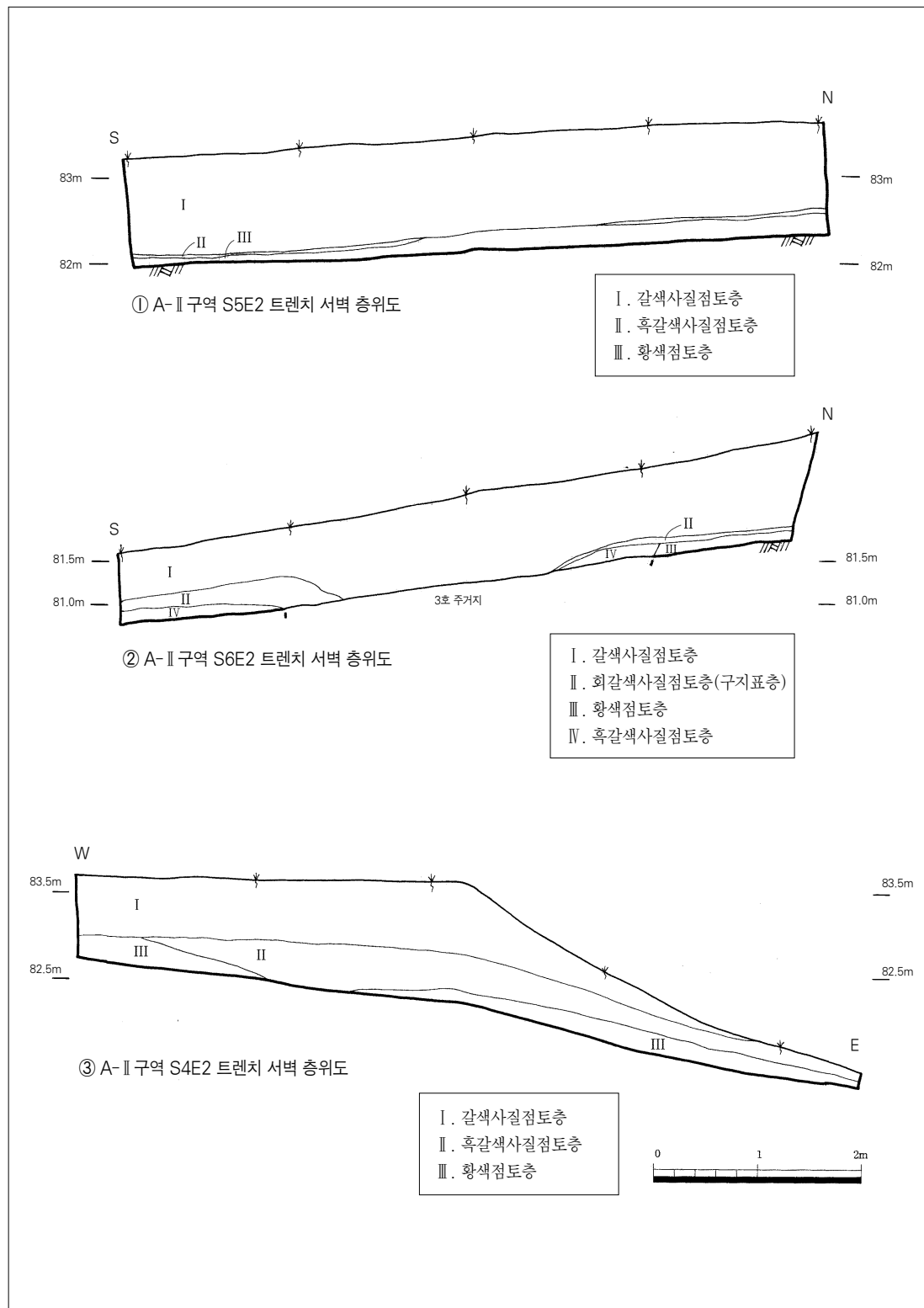
1. 층위

가. A지점(도면4~7, 사진 1)

층위는 트렌치별로 간층이 부분적으로 형성되어 있으나, 표토(1층), 흑갈색부식토층(2층 : 경작층, 교란층), 황색점토층(3층 : 백제시대 문화층), 풍화암반층(4층)으로 구분된다.(도면 5~7) 주거지가 집중적으로 확인되는 3층은 조사지역의 북동쪽에서 남서쪽으로 흘러내리는 양상을 보이며, 대부분의 주거지는 3층을 파고 조성되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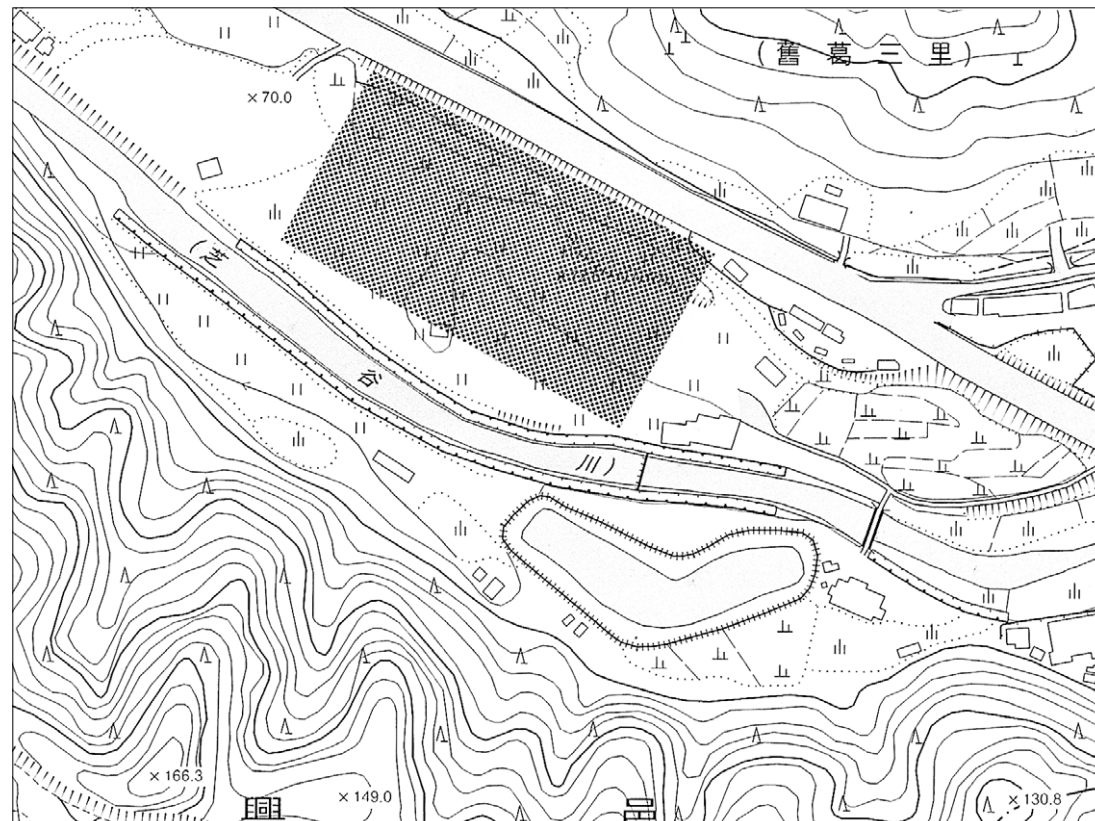
도면 6. A-I 구역 S2-S3E2 확장 피트 층위도(북동벽)



도면 7. A-Ⅱ 구역 트렌치 층위도(①: S5E2 서벽, ②: S6E2 서벽, ③: S4E2 북벽)

나. B지점(도면 8·11-①, 사진 3·4)

B지점의 층위는 최대 4m에 달하는 복토층(1층), 흑갈색부식토층(2층:구지표층), 갈색사질토(3층), 명갈색사질토(4층)으로 구별된다. 유구의 징후가 확인되지 않았다. 조사대상면적은 약 1,000평으로 조사결과 유구의 흔적이나 유적의 부존가능성이 있는 문화층을 전혀 확인할 수 없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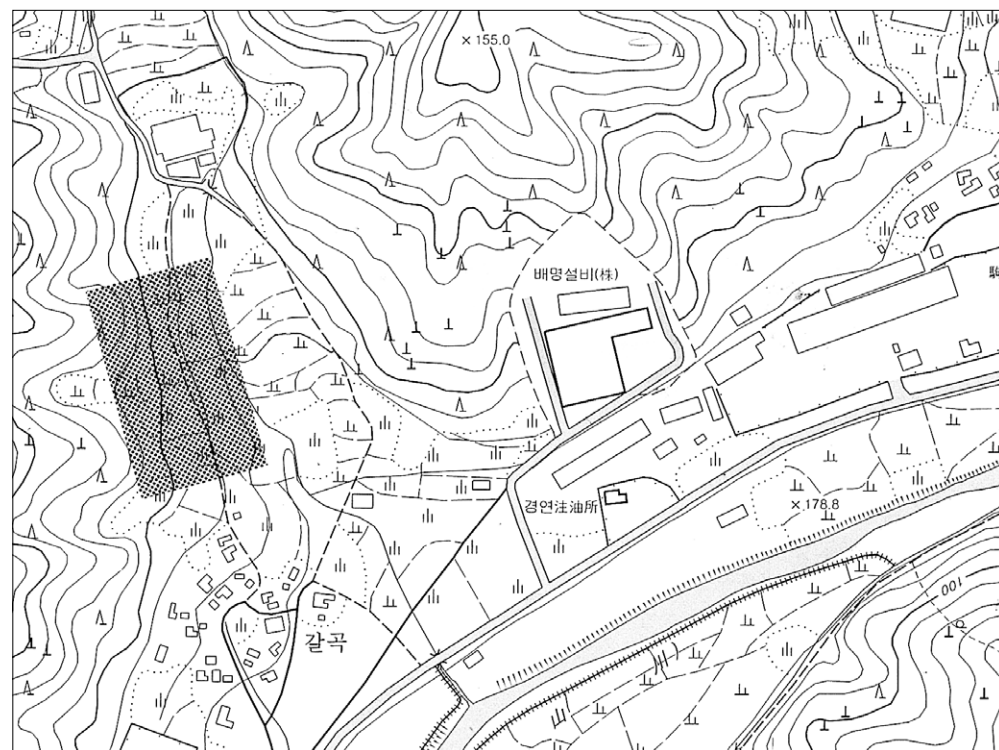
도면 8. B지점 시굴조사 위치도(1/5,000)

다. C지점(도면 9·11-②, 사진 5·6)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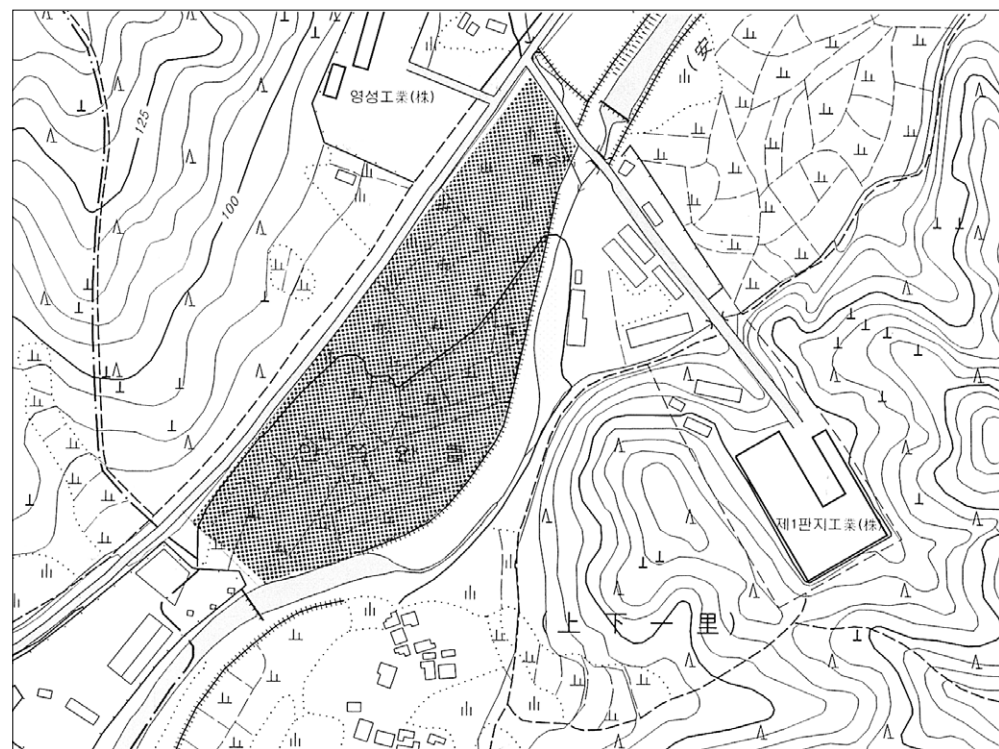
시굴조사 결과 유구나 문화층의 흔적은 전혀 확인되지 않았으며, 표토하에서 바로 암반층이 노출된다. 표토는 20cm 두께의 갈색부식토이고 부분적으로 할석이 혼입된 명갈색부식토가 이어진다.

라. D지점(도면 10·11-③, 사진 7·8)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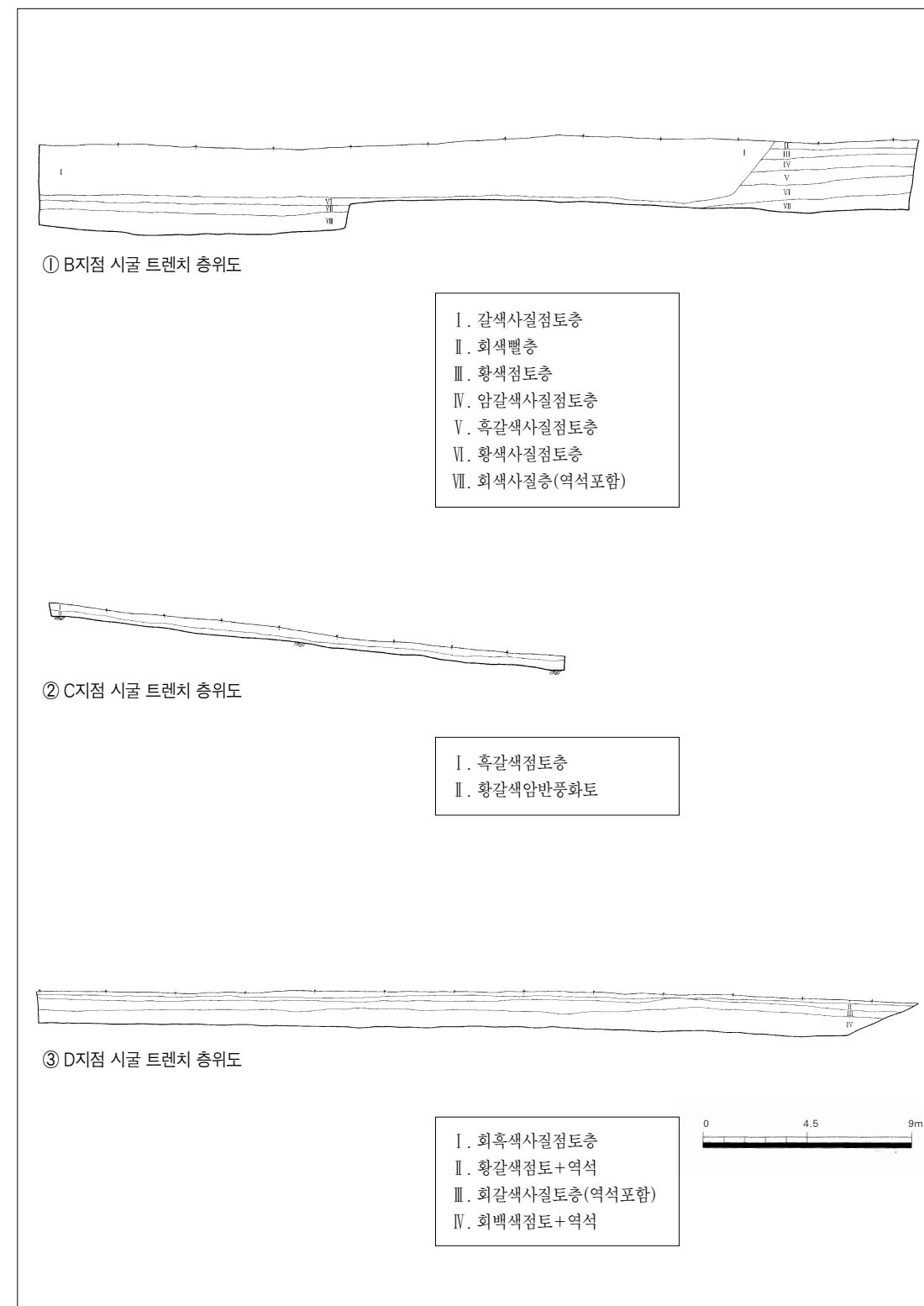
조사결과 유구나 문화층의 징후는 전혀 확인되지 않았으며, 출토유물도 전혀 없다. 층위는 표토(1층:약 20cm), 회색사질토(2층:약 25cm), 갈색사질토(3층:약 15cm), 회백색사질토(4층:약 45cm)의 순으로 구별된다. 회백색사질토 이하의 층은 용수(湧水)로 인해 조사할 수 없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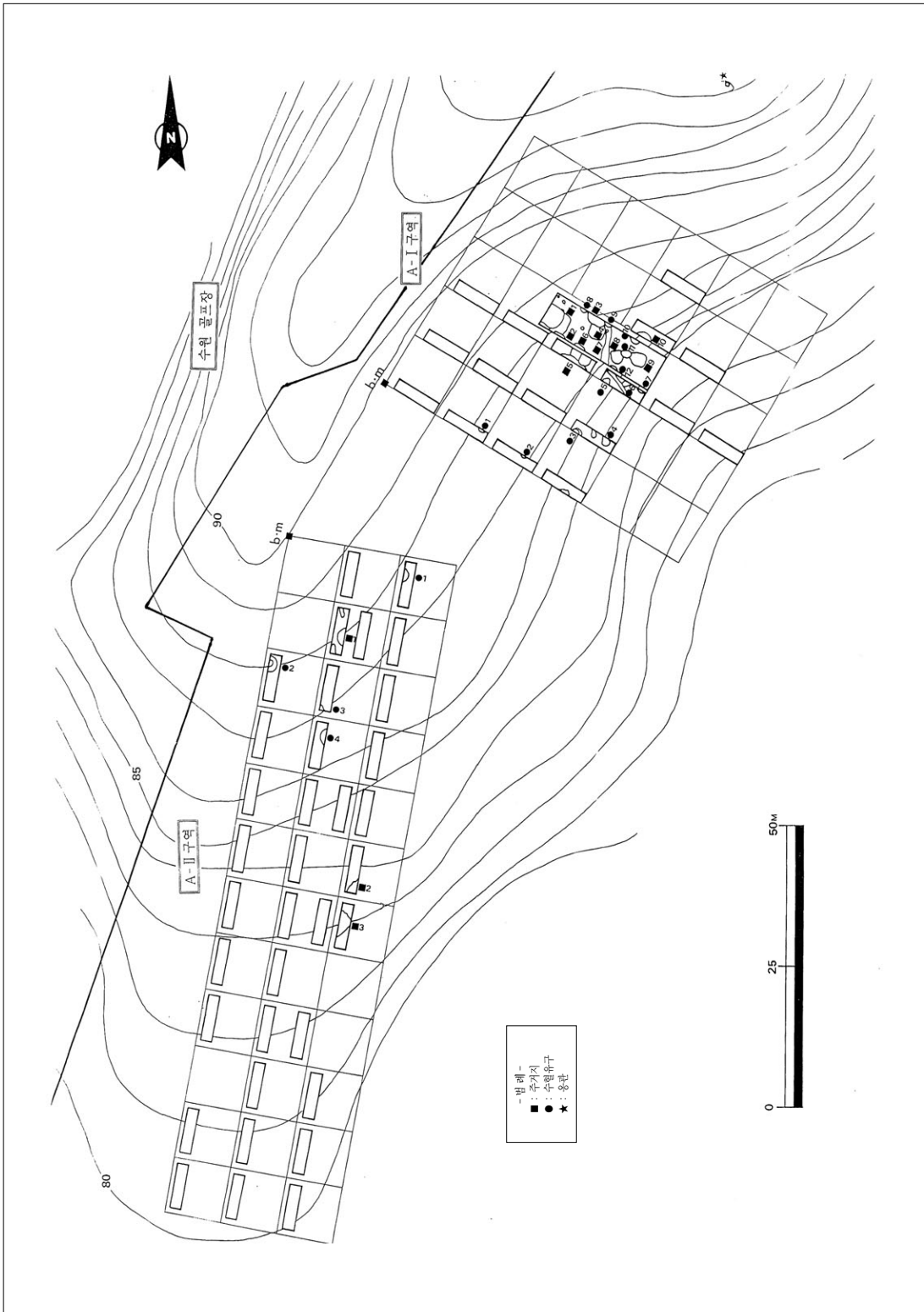
도면 9. C지점 시굴조사 위치도(1/5,000)



도면 10. D지점 시굴조사 위치도(1/5,000)



도면 11. B·C·D지점 시굴 트렌치 층위도



도면 12. A지점 측량도 및 유구배치도(1/500)

2. A지점 조사내용(도면 12, 사진 1)

조사지역은 북동쪽에서 남서쪽으로 깎여진 구릉 동사면과 남사면으로 조사의 편의상 자연 지형에 따라 한변 10m의 그리드를 구획하였으며 금령김씨 세장지인 동사면을 A-I 구역, 남사면을 A-II 구역으로 나누어 조사를 실시하였다. 각 구역별로 유구의 윤곽과 층위를 파악하기 위한 트렌치를 등간격으로 설치하였다.

A-I 구역은 묘광의 단면에서 층위를 파악한 후 묘역의 정상부에 B·M을 설정하고 이를 기준으로 지형에 따라 주축방향(N - 60° - W)인 그리드(10×10m)를 구획하였다. 그리드의 북동쪽에 폭 2m의 트렌치를 설정하였으며, 트렌치별로 생토층을 확인한 후 문화층과 유구의 범위를 조사하였다.

A-II 구역은 사면의 북서쪽에 B·M을 정한 후 지형에 따라 주축방향(N - 12° - E)인 그리드(10×10m)를 구획하고 각 그리드의 서쪽에 2×8m의 트렌치를 설정하여 실시하였다.

트렌치 조사는 굴삭기를 활용하여 체토하면서 작업을 진행시켰다. 조사대상 면적은 약 1,512평이다.

가. A-I 구역

이 지역에서는 백제시대의 단일 주거유적이 확인되었다. 주거지는 평면 방향과 타원형의 두 가지로 나뉘며, 능선의 동사면에서 집중적으로 확인된다. 조사지역의 하단부에서는 저장공이 집중적으로 조사되었다.

한편 조사지역에서 벗어난 북동사면에서는 정상부의 분묘개장을 위해 조성한 소로의 단면에서 합구식 옹관 1기가 조사되었다. 따라서 유적은 당초 시굴조사 범위보다 증가되었다.

A-I 구역에서 조사된 유구는 주거지 11기, 저장공 11기, 옹관묘 1기, 조선시대 회곽묘 1기 등 총 24기가 확인되었다. 조사된 유구의 현황은 다음의 <표 2>와 같다.

유구별 조사내용은 다음과 같다.

(1) 주거지

① 1호 주거지(도면 13, 사진 9·10)

S2-S3E2 확장 피트 북서쪽 묘광에서 주거지의 단면이 확인되어 피트의 평면을 조사하는 과정에서 어깨선이 노출되었다. 등고선방향과 평행하게 조성되었다. 주거지의 평면형태는 타원형 또는 말각방형으로 추정되며 장축은 북서-남동방향이다. 황색점토층과 암반층을 파고 조성되었으며, 내부퇴적토는 황색점토층이다. 북벽의 어깨부분에 두께 20cm정도의 소토부가 형성되어 있다. 현재 확인된 규모는 장축 400cm, 단축 310cm, 수혈깊이 32cm이다. 출토유물은 백제토기편으로 대부분 외면에 격자문, 승문 등이 타날되어 있다.

② 2호 주거지(도면13·14-①, 사진 9)

S2-S3E2 확장 피트와 S2E2 트렌치 조사과정에서 확인되었다. 1호 주거지의 남벽을 파괴하고 조성되었다. 주거지의 평면형태는 원형으로 장축은 북동-남서방향이다. 황색점토층을 파고 조성되었으며, 주거지의 바닥면과 남동벽에서 목탄과 소토가 집중적으로 확인된다. 현재 확인되는 규모는 장축

표 1. A-I 구역 유구 속성표

유 구 명	평면형태	규 모(cm)			장축방향	출 토 유 물	비 고
		장축	단축	수혈깊이			
1호 주거지	말 각 방 형	400	310	32	북서 - 남동	토기편 다수	일부 파괴
2호 주거지	원 형	280	270	25	북동 - 남서	토기편 다수	일부 파괴
3호 주거지	방 형	350	340		북동 - 남서	토기편, 대옹편 외	
4호 주거지	장 방 형	350	270		북동 - 남서	토기편, 대옹편 외	일부 파괴
5호 주거지	장 방 형	250	101	55	북서 - 남동		일부 파괴
6호 주거지	말 각 방 형	200	160		북서 - 남동		일부 파괴
7호 주거지	타 원 형	240	190		북동 - 남서		
8호 주거지	장 방 형	260	210		북서 - 남동	토기편, 시루 저부편, 대옹편 외	
9호 주거지	장 방 형	157	43		북서 - 남동	토기편, 철판, 외	
10호 주거지	타 원 형	310	140		북서 - 남동	토기편 다수	
11호 주거지						시루 1점	합구식 옹관 1기
1호 저장공	원 형	120	25		북동 - 남서		
2호 저장공	원 형	95	25		북동 - 남서		
3호 저장공	타 원 형	116	68		북서 - 남동	대옹편 외	
4호 저장공	타 원 형	123	116		북동 - 남서	토기편 다수	
5호 저장공	원 형	130	130		북동 - 남서	토기편 다수	
6호 저장공	타 원 형	116	88		북서 - 남동		
7호 저장공	장 방 형	160	150		북서 - 남동		
8호 저장공	장 방 형	100	30		북동 - 남서		
9호 저장공	장 방 형	220	42		북동 - 남서		
10호 저장공	방 형	157	43		북서 - 남동		
11호 저장공	원 형	140	110		북서 - 남동	토기편 다수	
회곽묘	장 방 형	187	68		동 - 서		합장

※ 단, 유구는 대부분이 트렌치 벽에 걸려서 확인된 것으로 계측치는 일부분을 나타내는 것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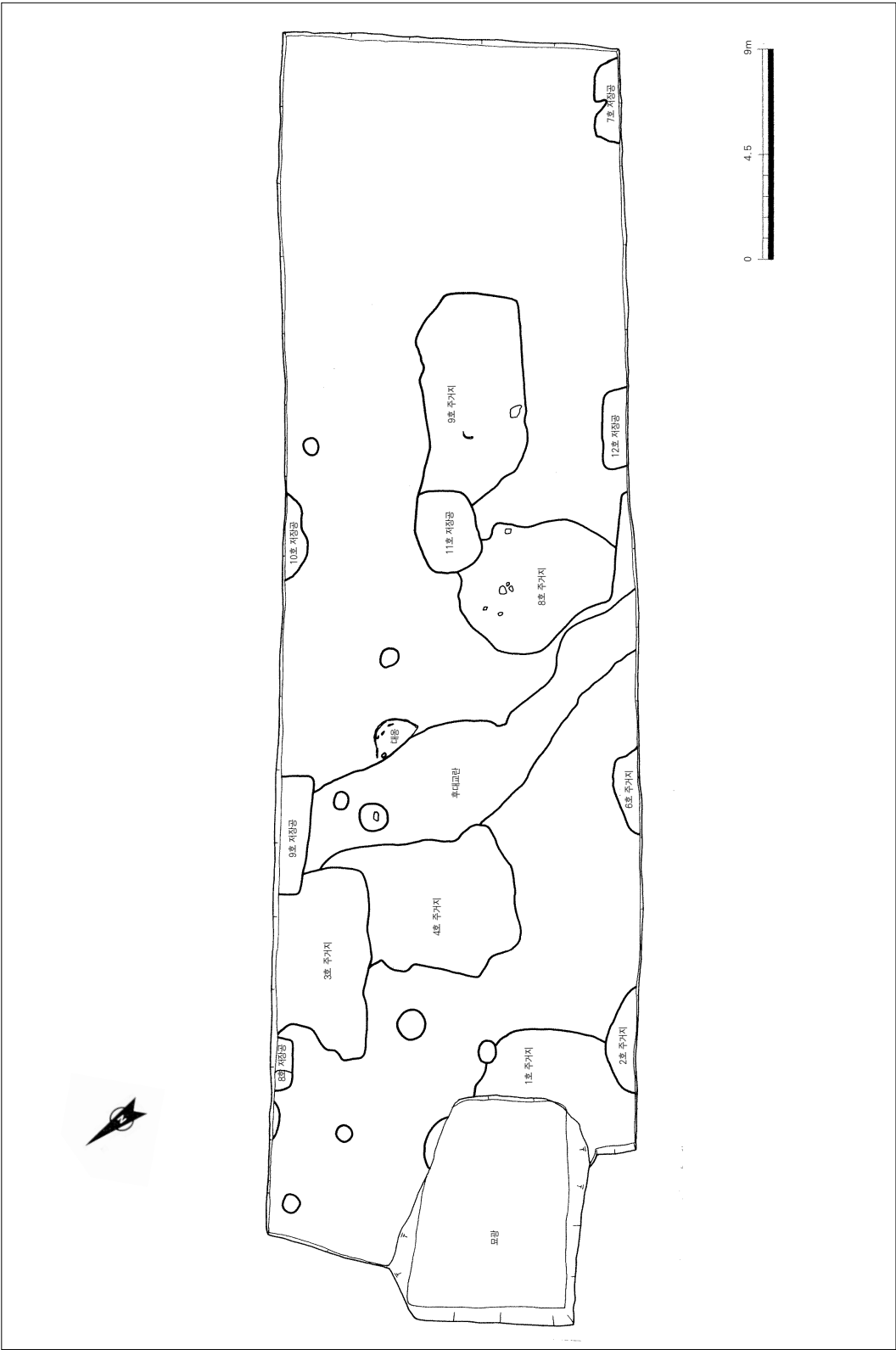
280cm, 단축 270cm, 수혈깊이 25cm이며, 다수의 백제토기편이 출토되었다.

③ 3호 주거지(도면 13, 사진 1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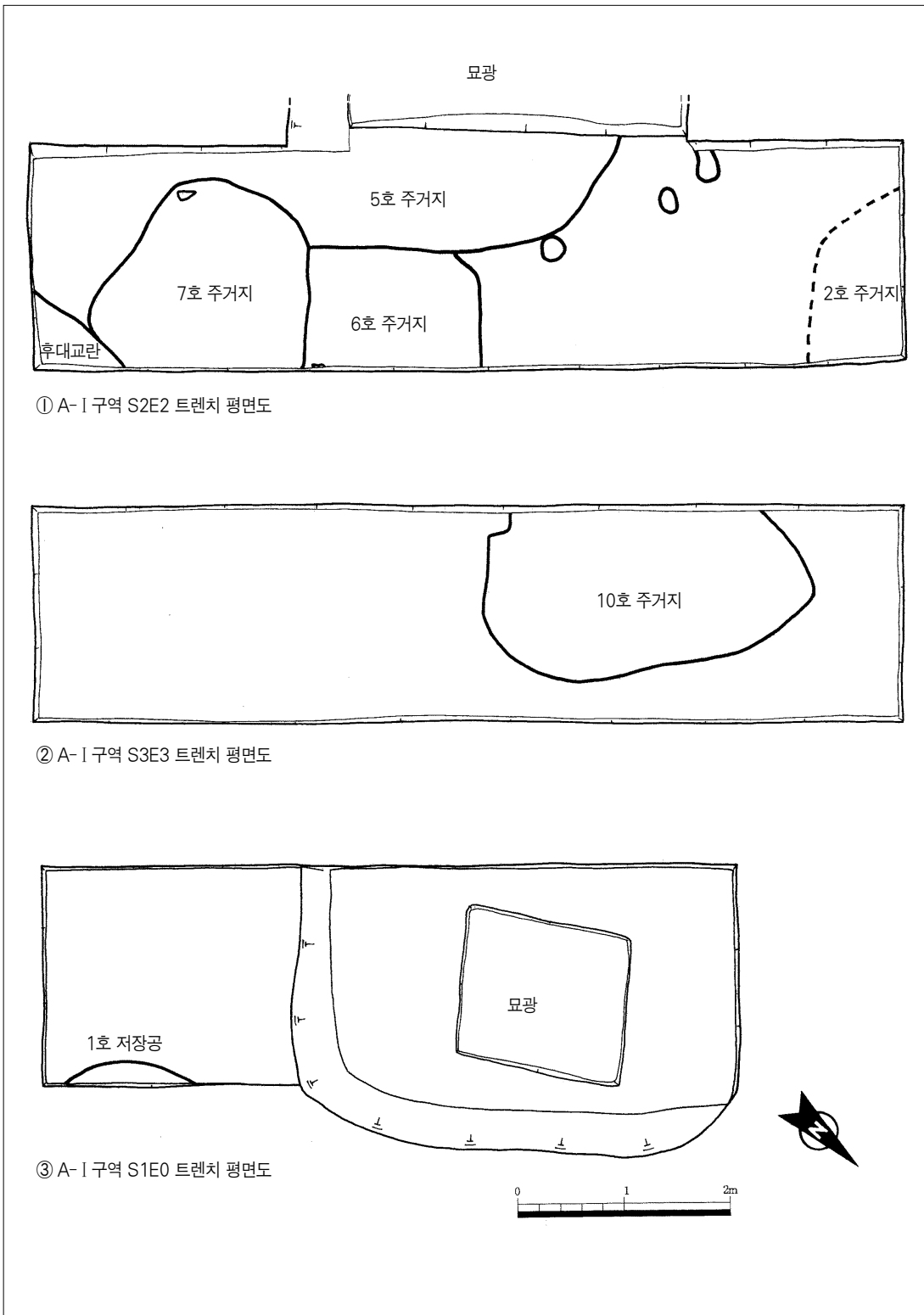
S2-S3E2 확장 피트 조사과정에서 확인되었다. 4호 주거지의 북벽을 파괴하고 조성되었다. 주거지의 평면형태는 방형이며, 장축은 북동-남서방향이다. 황색점토층을 파고 조성되었으며, 유구노출면에서 다량의 목탄과 소토가 확인되었다. 현재 확인된 규모는 장축 350cm, 단축 320~340cm이며, 출토 유물은 다수의 백제토기편이다.

④ 4호 주거지(도면 13, 사진 11)

S2-S3E2 확장 피트 조사과정에서 확인되었다. 3호 주거지의 의해 북벽이 파괴된 중복주거지이다. 평면형태는 장방형으로 장축은 북동-남서방향이다. 황색점토층을 파고 조성되었으며, 내부에서 다량의 목탄



도면 13. A-I 구역 S2-S3E2 확장 피트 평면도



도면 14. A-I 구역 트렌치 평면도(①:S2E2, ②:S3E3, ③:S1E0)

이 확인된다. 현재 확인되는 규모는 장축 350cm, 단축 270cm이며, 출토유물은 다수의 백제토기편이다.

⑤ 5호 주거지(도면 14-①, 사진 12)

S2E2 트렌치 조사과정에서 확인되었다. 6호 주거지의 남벽을 파괴하고 조성되었으며, 7호 주거지에 의해 동벽이 파괴되었다. 평면형태는 장방형으로 장축은 북서-남동방향이다. 수혈은 2단으로 조성되었는데 유구가 중복되었거나 당시의 보수 혹은 개축이 행해졌을 가능성이 있다. 주거지 내부퇴적토는 2개로 나뉘는데 바닥에서 상부로 30cm지점까지 목탄과 점토가 집중되는 것으로 보아 화재로 인하여 벽체 등 상부구조가 매몰된 것으로 보인다. 현재 확인되는 규모는 장축 250cm, 단축 101cm, 수혈 깊이 55cm이다.

⑥ 6호 주거지(도면 13·14-①, 사진 12·13)

S2E2 트렌치 조사과정에서 확인되었다. 7호 주거지에 의해 동벽이 파괴되었다. 평면형태는 말각방형으로 생각되며 황색점토층을 파고 조성되었다. 내부퇴적토는 목탄과 소토가 혼입된 황색점토층이다. 현재 확인되는 규모는 장축 200cm, 단축 160cm이다.

⑦ 7호 주거지(도면 14-①, 사진 12·14)

S2E2 트렌치 조사과정에서 확인되었다. 5·6호 주거지의 동벽을 파괴하고 조성되었다. 평면형태는 타원형으로 장축은 북동-남서방향이다. 내부퇴적토는 흑갈색점토층으로 이루어졌으며, 현재 확인되는 규모는 장축 240cm, 단축 190cm 가량이다.

⑧ 8호 주거지(도면 13, 사진 15)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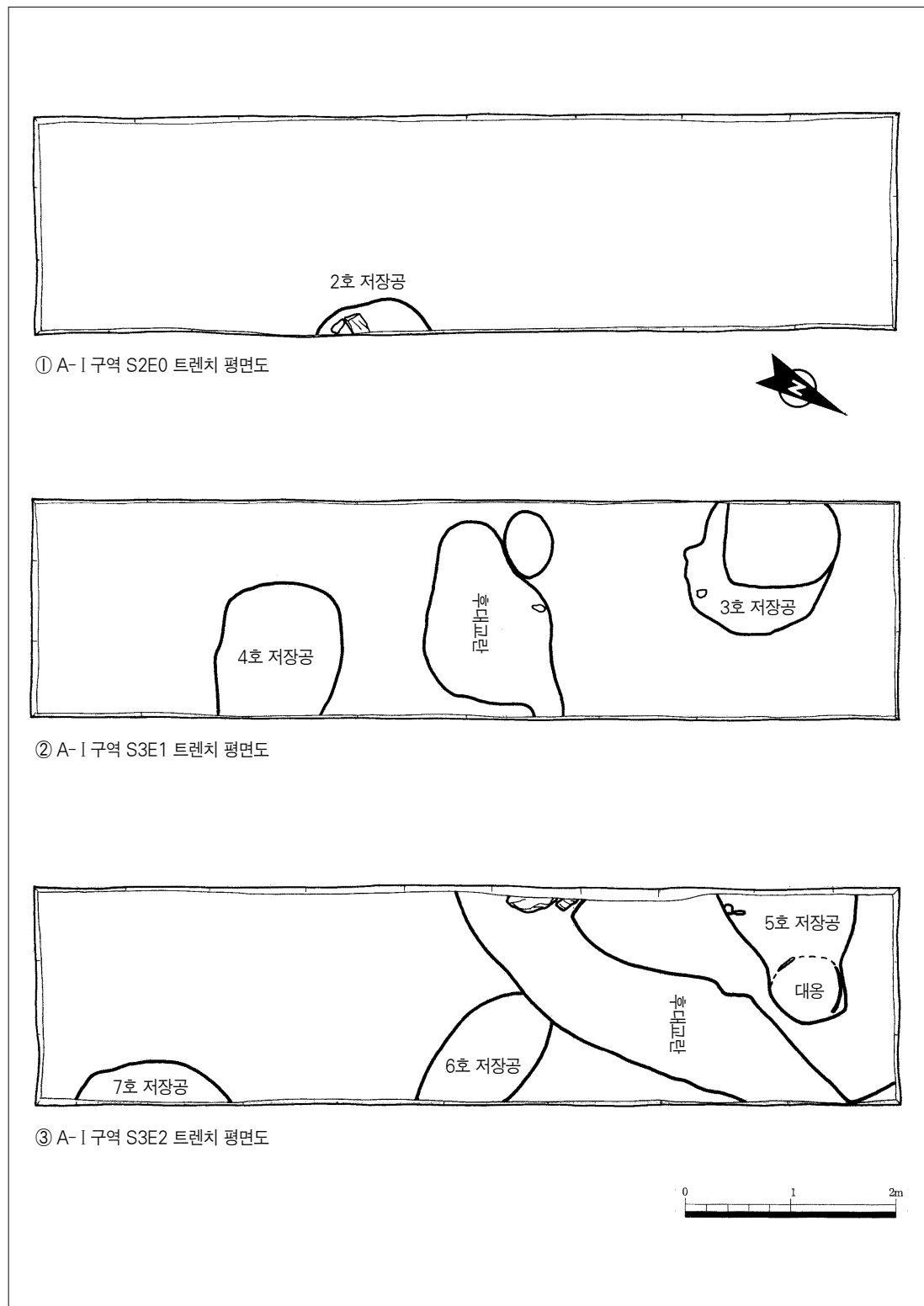
S2-S3E2 확장 피트 조사과정에서 확인되었다. 황색점토층을 파고 조성되었으며, 내부퇴적토는 황색점토에 굵은 석립이 혼입되어 있다. 평면형태는 장방형으로 9호 주거지와 11호 저장공에 연결해 'ㅈ'자 형태를 이루고 있다. 장축은 북서-남동방향이며 현재 확인된 규모는 장축 260cm, 단축 210cm이며, 출토유물은 백제토기편이다.

⑨ 9호 주거지(도면 13, 사진 15·16)

S2-S3E2 확장 피트 조사과정에서 확인되었다. 황색점토층과 암반층을 파고 조성되었다. 내부퇴적토는 황색점토와 굵은 석립이 혼입되어 있다. 평면형태는 장방형으로 장축은 북서-남동방향이다. 현재 확인되는 규모는 장축 157cm, 단축 42cm이다. 출토유물은 철기편과 백제토기편이다.

⑩ 10호 주거지(도면 14-②, 사진 12)

S3E3 트렌치 조사과정에서 확인되었다. 암반층을 파고 조성되었으며, 내부퇴적토는 흑갈색부식토이다. 평면형태는 장타원형으로 확인된 규모는 장축 310cm, 단축 140cm이다. 출토유물은 백제토기편이다.



도면 15. A-I 구역 트렌치 평면도(①:S2E0, ②:S3E1, ③:S3E2)

⑪ 11호 주거지(사진 17)

구릉의 북동쪽 능선의 정상부에 있는 민묘를 개장하기 위해 중장비가 진입로를 조성하면서 절토된 단면상에서 확인되었다. 현재 주거지 윤곽의 극히 일부만 확인된 상태이며 평면형태는 파악할 수 없다. 단면상에서 확인되는 층위는 표토(1층), 갈색부식토층(2층), 암갈색부식토층(3층), 황색점토층(4층)의 4개 층위로 대별된다. 유구는 3층과 4층을 파고 조성되었다.

(2) 저장공

① 1호 저장공(도면 14-③, 사진 18)

S1E0 트렌치 조사과정에서 확인되었다. 등고선방향과 평행하게 암반층을 파고 조성되었다. 지표하 20cm 지점에서 확인되었으며, 평면형태는 원형이다. 장축은 북동-남서방향이며, 현재 확인된 규모는 장축 120cm, 단축 25cm이고 출토유물은 없다.

② 2호 저장공(도면 15-①, 사진 19)

S2E0 트렌치 조사과정에서 확인되었다. 지표하 10cm 지점에서 확인되었으며 암반층을 파고 조성되었다. 장축은 북동-남서방향으로 평면형태는 원형이다. 현재 확인된 규모는 장축 95cm, 단축 25cm이며 출토유물은 없다.

③ 3호 저장공(도면 15-②, 사진 20·21)

S3E1 트렌치 조사과정에서 확인되었다. 지표하 125cm 지점에서 확인되었으며, 황색점토층을 파고 조성되었다. 장축은 북서-남동방향으로 평면형태는 타원형이며, 내부에는 후대의 수혈이 중복되어 있다. 현재 확인된 규모는 장축 116cm, 단축 68cm이다.

④ 4호 저장공(도면 15-②, 사진 20)

S3E1 트렌치 조사과정에서 확인되었다. 3호 저장공의 동편에 위치한다. 황색점토층을 파고 조성되었으며, 평면형태는 타원형이다. 장축은 북동-남서방향이다. 현재 확인되는 규모는 장축 123cm, 단축 116cm이다.

⑤ 5호 저장공(도면 15-③, 사진 22)

S3E2 트렌치 조사과정에서 확인되었다. 황색점토층을 파고 조성되었으며 내부토는 황갈색부식토와 갈색점토이다. 북동 모서리에 직경 62cm의 흑색경질대응이 확인되었다.

장축은 북동-남서방향이며 현재 확인된 규모는 장·단축 130cm 정도이다.

⑥ 6호 저장공(도면 15-③, 사진 22)

S3E2 트렌치 조사과정에서 확인되었다. 황색점토층을 파고 조성되었다. 평면형태는 타원형으로 추정되며, 장축은 북서-남동방향이다. 현재 확인된 규모는 장축 116cm, 단축 88cm이다.

⑦ 7호 저장공(도면 15-③, 사진 22)

S2-S3E2 확장 피트 조사과정에서 확인되었다. 황색점토층과 암반층을 파고 조성되었으며, 내부에는 황갈색부식토가 매립되어 있다. S3E2 트렌치로 이어진다. 내부퇴적토에서 약간의 목탄이 확인되었으며, 평면형태는 장방형이다. 장축은 북서-남동방향으로 현재 확인된 규모는 장축 160cm, 단축 150cm이다.

⑧ 8호 저장공(도면 13, 사진 23)

S2-S3E2 확장 피트 조사과정에서 확인되었다. 황색점토층을 파고 조성되었으며, 내부에는 흑갈색 부식토가 매립되었다. 평면형태는 장방형으로 내부에는 폭 35cm의 원형수혈이 확인된다. 장축은 북동-남서방향이며, 현재 확인된 유구의 규모는 장축 100cm, 단축 30cm이다.

⑨ 9호 저장공(도면 13, 사진 23)

S2-S3E2 확장 피트 조사과정에서 확인되었다. 유구는 트렌치 벽면에서 확인되었으며, 흑갈색부식토층을 파고 조성되었다. 평면형태는 장방형으로 유구 내부와 상층에서 자기편 등의 유물이 수습되었다. 장축은 북동-남서방향으로 현재 확인된 유구의 규모는 장축 220cm, 단축 42cm이다.

⑩ 10호 저장공(도면 13, 사진 23·24)

S2-S3E2 확장 피트 조사과정에서 확인되었다. 황색점토를 파고 조성되었으며, 내부는 갈색부식토로 매립되었다. 평면형태는 방형으로 장축은 북서-남동방향이다. 현재 확인된 규모는 장축 157cm, 단축 43cm이다. 출토유물은 유구 주변에서 수습된 백제토기편이다.

⑪ 11호 저장공(도면 13, 사진 23)

S2-S3E2 피트 조사 중 8·9호 주거지 중복지점에서 확인되었다. 2기의 주거지와 중복된 상태로 평면형태는 말각방형이며, 확인된 규모는 장·단축 110~140cm 정도이다.

(3) 옹관(도면 16, 사진 19·20, 41~44)

옹관은 장란형토기 1점과 시루 1점을 연결해서 조성한 합구식 옹관이며,(사진 41) 장축은 등고선방향과 직교하고 있다. 남관은 장란형토기,(사진 42) 북관은 시루(사진 43)를 사용하였는데, 남관이 북관안으로 10cm 정도 들어가 있었다. 시루의 바닥은 말각평저이며, 동상위에는 파수가 부착되어 있다. 시루의 바닥 중앙은 원형으로 파괴되었으며,(사진 44) 대웅 저부편을 이용하여 시루 구멍을 막아 놓았다. 토기의 전면에는 승문이 타날되어 있으며, 다만 시루의 바닥을 막은 대웅 저부편에는 승문과 격자문이 혼합 타날되어 있다.

유구가 집중적으로 확인되는 황색점토층의 출토유물 중에는 와편이 2점(사진 38) 포함되어 있다. 기와의 출토는 주변에 주거지와 연관된 생산유적이 존재할 가능성을 부각시키는 중요한 유물로 생각된다.

나. A-Ⅱ 구역

유구는 구역의 북쪽과 동쪽에서 확인되었다. 북쪽의 유구들은 암반층을 파고 조성되었지만 동쪽의 유구들은 황색점토층을 파고 조성되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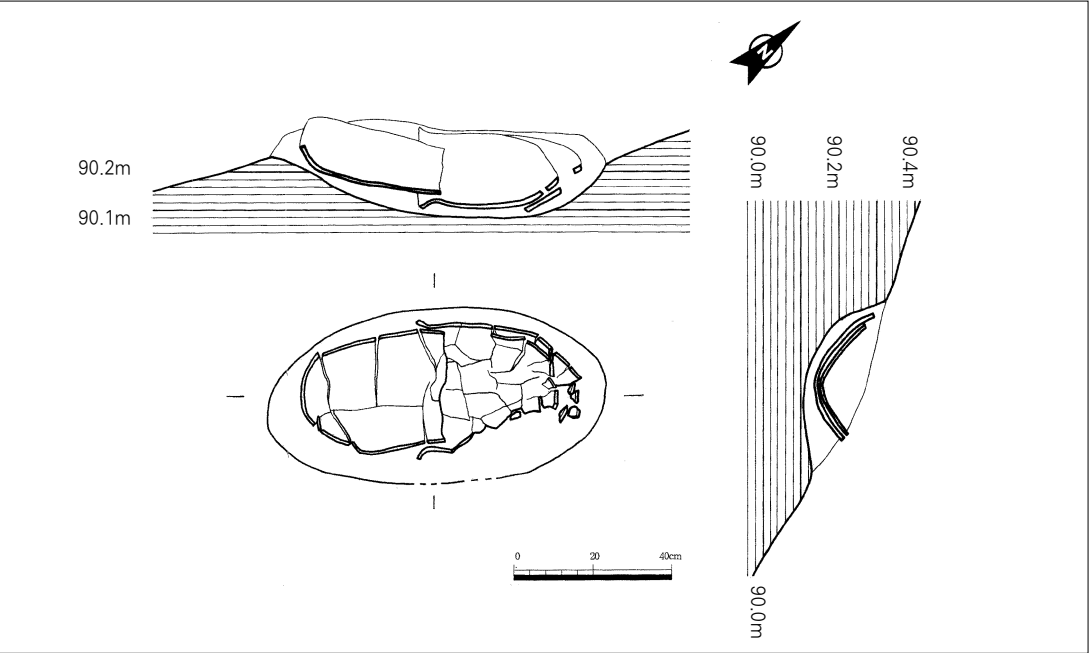
층위는 사면의 북쪽에서는 표토하에서 바로 암반층이 확인되지만, 주거지가 확인되는 능선의 동사면은 복토층하에서 구지표, 구지표하에서 황색점토층이 확인되었다.

확인된 유구는 주거지 3기, 저장공 4기이며 부분적으로 후대의 교란 구덩이가 조사되었다. 조사된 유구의 현황은 다음의 <표 3>과 같다.

표 2. A-Ⅱ 구역 유구 속성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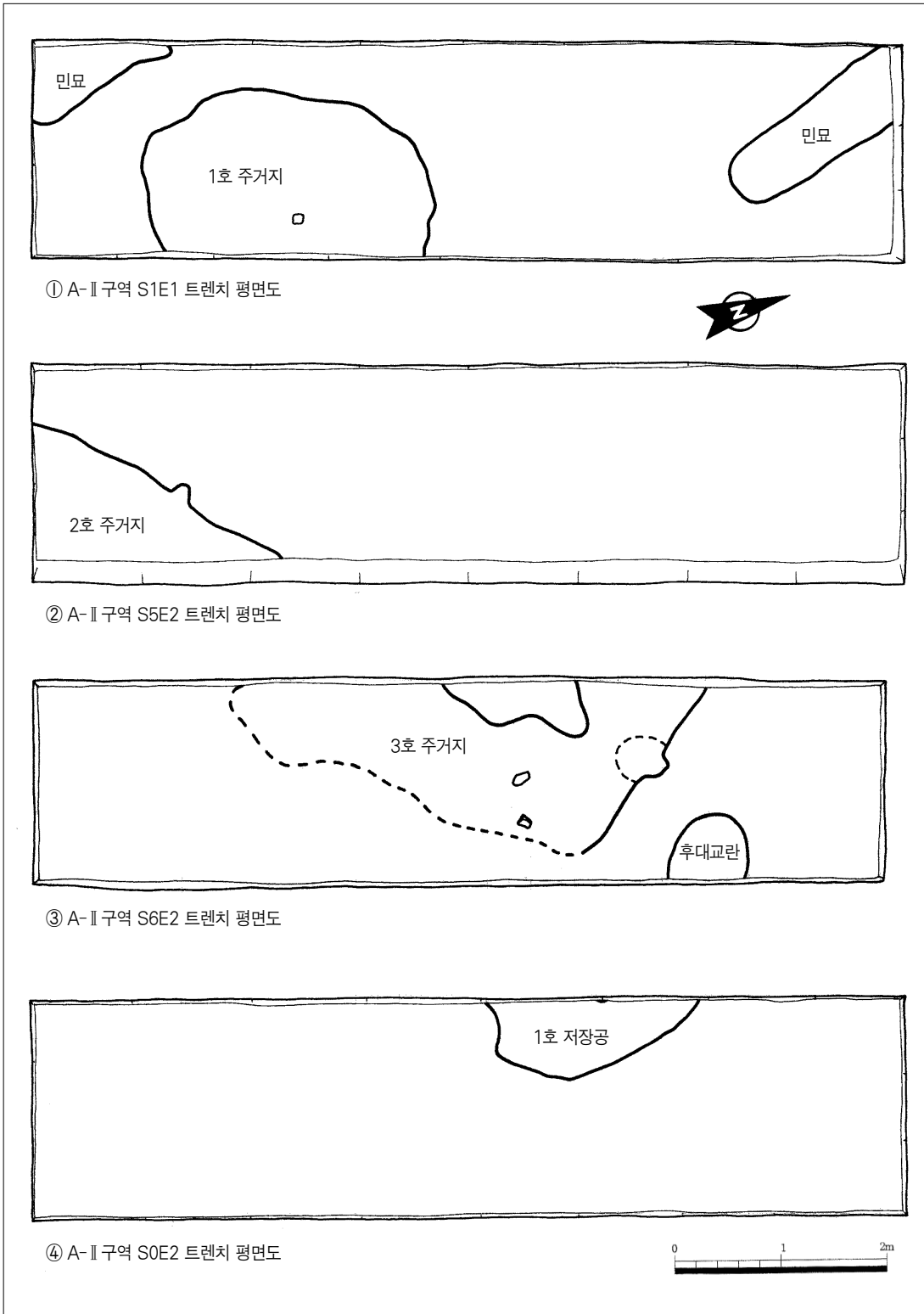
유 구 명	평면형태	규 모(cm)		장축방향	출 토 유 물	비 고
		장축	단축			
1호 주거지	원 형	250	40	북-남	심발형토기 저부편 외	
2호 주거지	방 형	230	130	북동-남서	토기편 다수	
3호 주거지	방 형	370	180	북동-남서	장란형토기 외	
1호 저장공	원 형	200	80	북-남	대웅편 외	
2호 저장공	원 형	170		북-남		
3호 저장공	원 형			북-남		
4호 저장공	원 형	190	110	북동-남서		

※ 단, 유구는 대부분이 트렌치 벽에 걸려서 확인된 것으로 계속치는 일부분을 나타내는 것임.



도면 16. A-I 구역 출토 옹관 평·단면도

유구별 조사내용은 다음과 같다.



도면 17. A-Ⅱ 구역 트렌치 평면도(①:S1E1, ②:S5E2, ③:S6E2, ④:S0E2)

(1) 주거지

① 1호 주거지(도면 17-①, 사진 27)

S1E1 트렌치 조사과정에서 확인되었다. 암반층을 파고 조성되었으며, 내부퇴적토는 황색점토와 석비레가 혼재되어 있다. 평면형태는 원형이며 장축방향은 북-남방향이다. 유구의 북측에는 소토부가 형성되어 있으며, 출토유물은 승문이 타날되어 있는 심발형토기 저부편 1점이 있다. 현재 확인된 유구의 규모는 장축 250cm, 단축 40cm이다.

② 2호 주거지(도면 17-②, 사진 28)

S5E2 트렌치 조사과정에서 남동벽에 치우쳐 확인되었다. 상부의 복토층을 제거하자 구지표가 노출되었고, 구지표 하부의 황색점토층을 파고 조성되었다. 내부퇴적토는 흑갈색부식토층으로 점성을 띠고 있으며, 소량의 목탄이 혼입되어 있다. 평면형태는 방형으로 추정되며 장축은 북동-남서방향이다. 현재 확인되는 규모는 장축 230cm, 단축 130cm이며, 출토유물은 백제토기편이다.

③ 3호 주거지(도면 17-③, 사진 29·30)

S6E2 트렌치 조사과정에서 확인되었다. 트렌치의 중앙부 서쪽 벽면에 걸려서 확인되었으며, 평면형태는 방형으로 추정된다. 주거지의 중앙 상부는 후대의 교란에 의해 단면 'V' 자형의 구덩이가 형성되어 있다. 주거지의 북쪽 어깨선에서는 원형의 소토부가 확인되었다. 장축은 북동-남서방향으로 황색점토층을 파고 조성되었다. 현재 확인되는 규모는 장축 370cm, 단축 180cm이며, 출토유물은 장란형토기 구연부편 등이다.

(2) 저장공

① 1호 저장공(도면 17-④, 사진 3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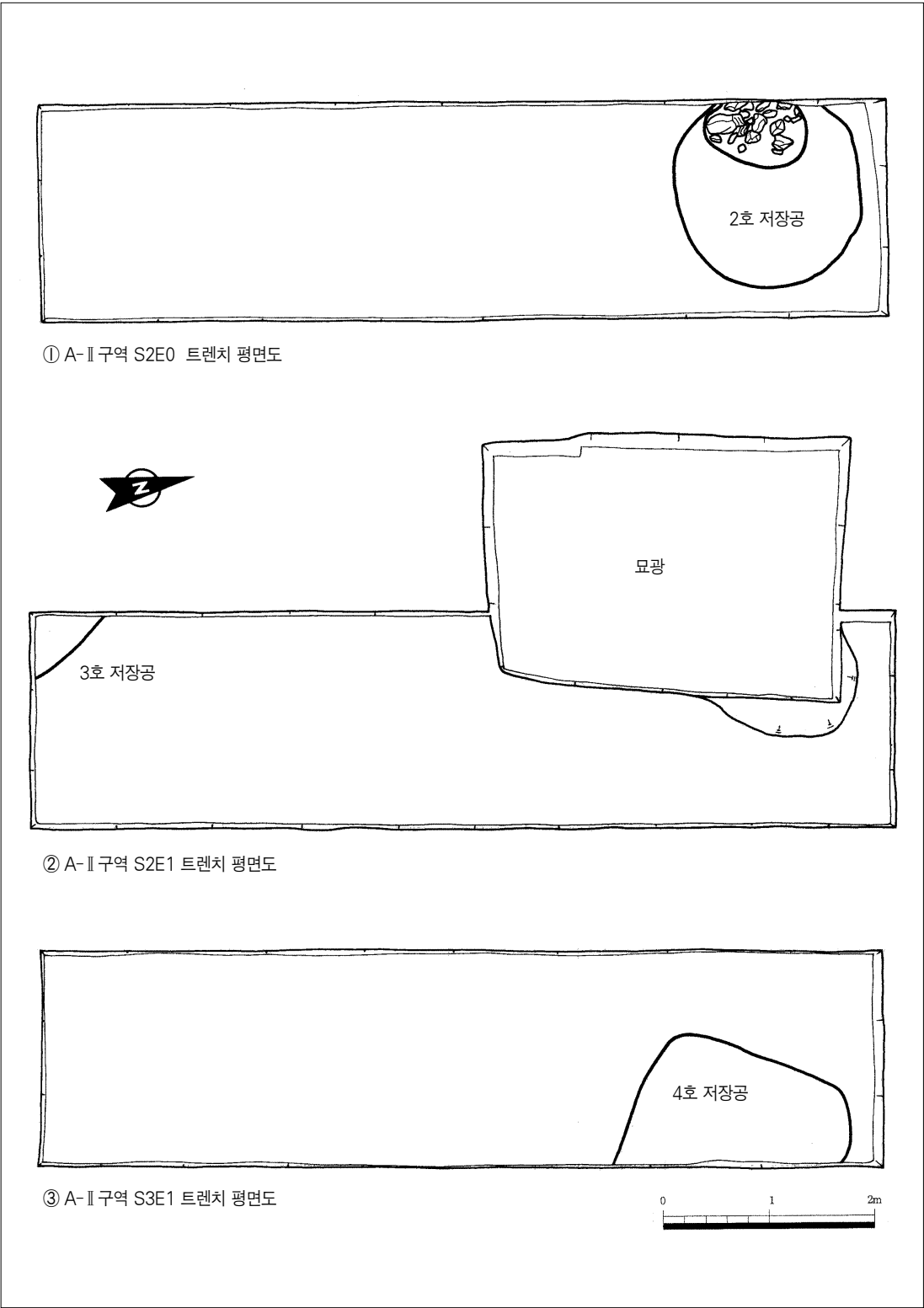
S0E2 트렌치 조사과정에서 확인되었다. 암반층을 파고 조성되었으며, 평면형태는 원형이다. 장축방향은 북-남방향으로 현재 확인되는 장축은 200cm, 단축은 80cm 가량이다. 출토유물은 대옹편 등이 있다.

② 2호 저장공(도면 18-①, 사진 32)

S2E0 트렌치 조사과정에서 확인되었다. 암반층을 파고 조성하였으며, 평면형태는 원형이다. 장축은 북-남방향으로 현재 확인되는 장축은 약 170cm 가량이다. 내부에는 후대의 교란으로 형성된 집석유구가 있다.

③ 3호 저장공(도면 18-②, 사진 33)

S2E1 트렌치 조사과정에서 확인되었다. 트렌치의 남서모서리에서 극히 일부만이 확인되어 정확한 형태나 규모는 파악할 수 없으나 어깨선의 형태로 보아 평면 형태는 원형, 장축은 북-남방향으로 추정된다.



도면 18. A-Ⅱ 구역 트렌치 평면도(①:S2E0, ②:S2E1, ③:S3E1)

④ 4호 저장공(도면 18-③, 사진 34)

S3E1 트렌치 조사과정에서 확인되었다. 암반층을 파고 조성되었으며, 평면형태는 원형이다. 장축은 북동-남서방향으로 현재 확인되는 규모는 장축 190cm, 단축 110cm 가량이다.

V. 맺 음 말(조사결과)

이상의 기흥 구갈(3) 택지개발예정지구내 A·B·C·D지점에 대한 유적 시굴조사 결과를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A지점은 조사결과 한성 백제시대의 단일 주거유적으로 확인되었다. 조사범위는 조사대상지역 밖인 A-I 구역 북동사면에서 합구식 옹관 및 주거지가 확인되어 면적은 다소 증가되었다.

둘째, A지점에서 확인된 주거지 및 저장공은 총 30여기에 달한다. 유구가 집중적으로 확인되는 황색 점토층은 조사지역의 동사면에 집중되어 있는 양상을 보인다. 이들 유구들은 중복양상이 매우 복잡하며 특히 A-I 구역의 북동사면에서는 10여기의 주거지와 함께 저장공이 무질서하게 확인되고 있어 주거유적 이외의 성격을 지녔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따라서 이의 성격확인을 위한 전면 발굴조사가 필요하다.(약 3,000평)

셋째, A지점의 동쪽 계곡부는 주거유적과 연관된 생산유적의 부존가능성이 높은 지역으로 지도위원회 결과 추가적인 트렌치조사의 필요성이 제기되었다.(약 2,000평)

넷째, B·D지점은 충적대지로 선사시대유적의 부존가능성이 높은 지역으로 판단되었으나 징후를 전혀 확인할 수 없었으며, C지점 역시 유적의 흔적은 확인할 수 없었다.

한편, 시굴조사가 이루어진 지역은 물론이고 이루어지지 않은 지역에서도 유구가 확인될 가능성이 있으므로 공사 시행 중에 유구가 발견될 때에는 반드시 조사단에 통보하여 적절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표 3. 기흥 구갈 3 택지개발예정지구 유적 시굴조사 현황

지점	유적위치	지표조사시 성격	조사면적(평)	확인된 성격	비 고
A	기흥읍 구갈리 1구역	무문·백제토기산포지	1,512	백제시대 주거유적	발굴 및 추가 트렌치 조사(약 5,000평)
B	신갈천(지곡천)변	충적지대	1,000	유적 없음	공사시행
C	구성읍 상하리 2구역	백자산포지	4,537	유적 없음	공사시행
D	안산천 변	충적지대	1,000	유적 없음	공사시행
계			8,049		

사 진



사진 1. A지점 전경



사진 3. B지점 전경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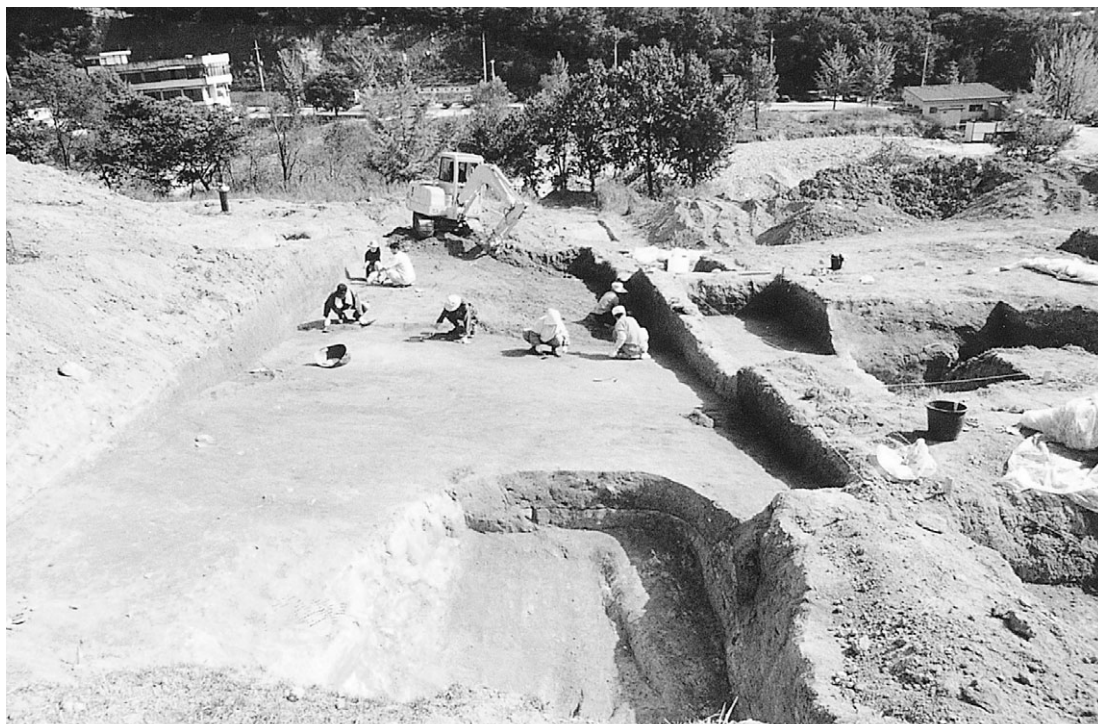


사진 2. A지점 작업광경



사진 4. B지점 트렌치 조사 후 전경



사진 5. C지점 전경



사진 7. D지점 전경



사진 6. C지점 트렌치 조사 후 전경



사진 8. D지점 트렌치 조사 후 전경



사진 9. A-I 구역 1·2호 주거지 중복상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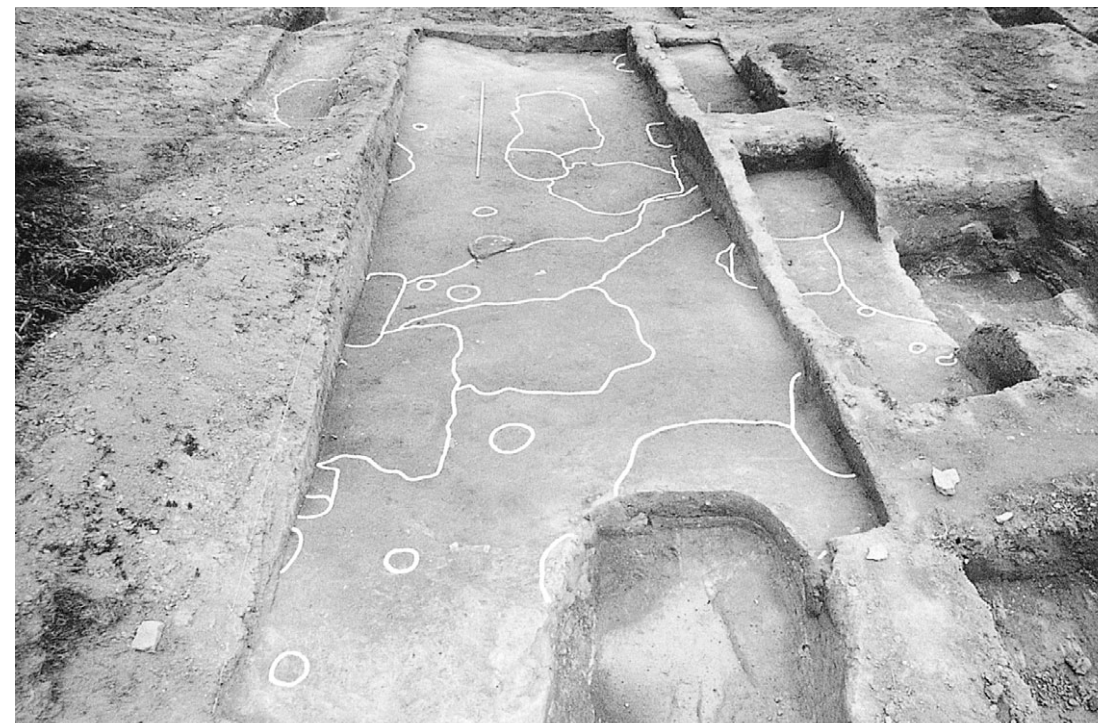


사진 11. A-I 구역 S2-S3E2 확장 피트 유구 노출상태



사진 10. A-I 구역 1호 주거지 토층 단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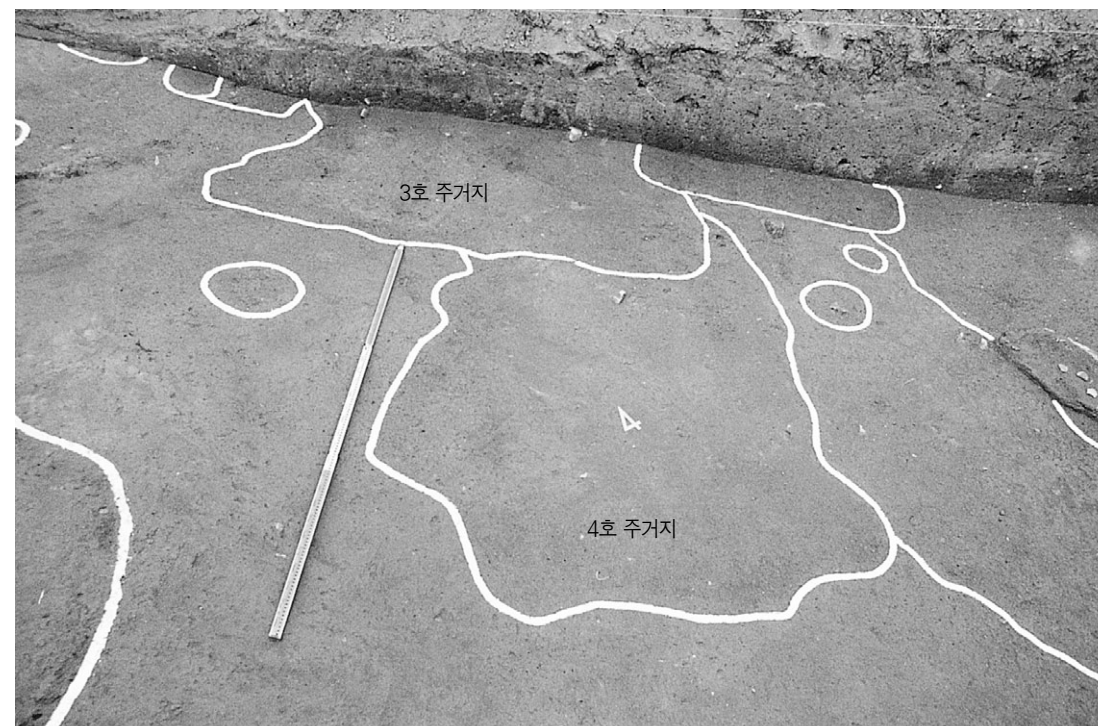


사진 12. A-I 구역 3·4호 주거지 노출상태



사진 13. A-I 구역 6호 주거지 굴광선 노출상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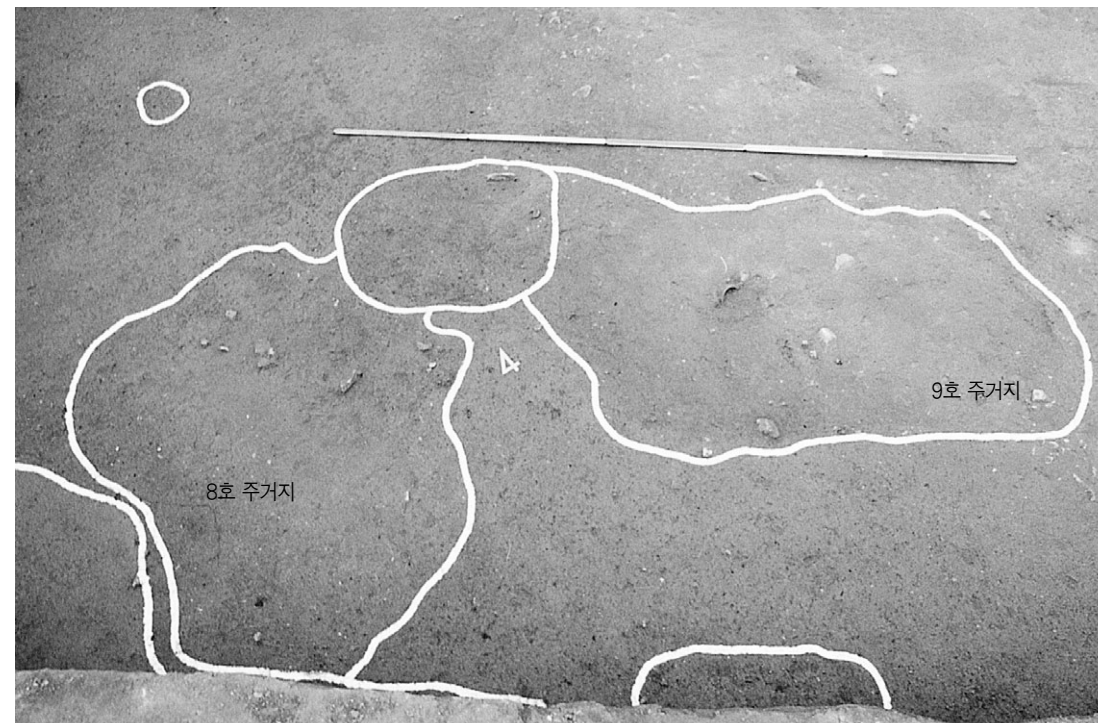


사진 15. A-I 구역 8·9호 주거지 노출상태



사진 14. A-I 구역 7호 주거지 유물 노출상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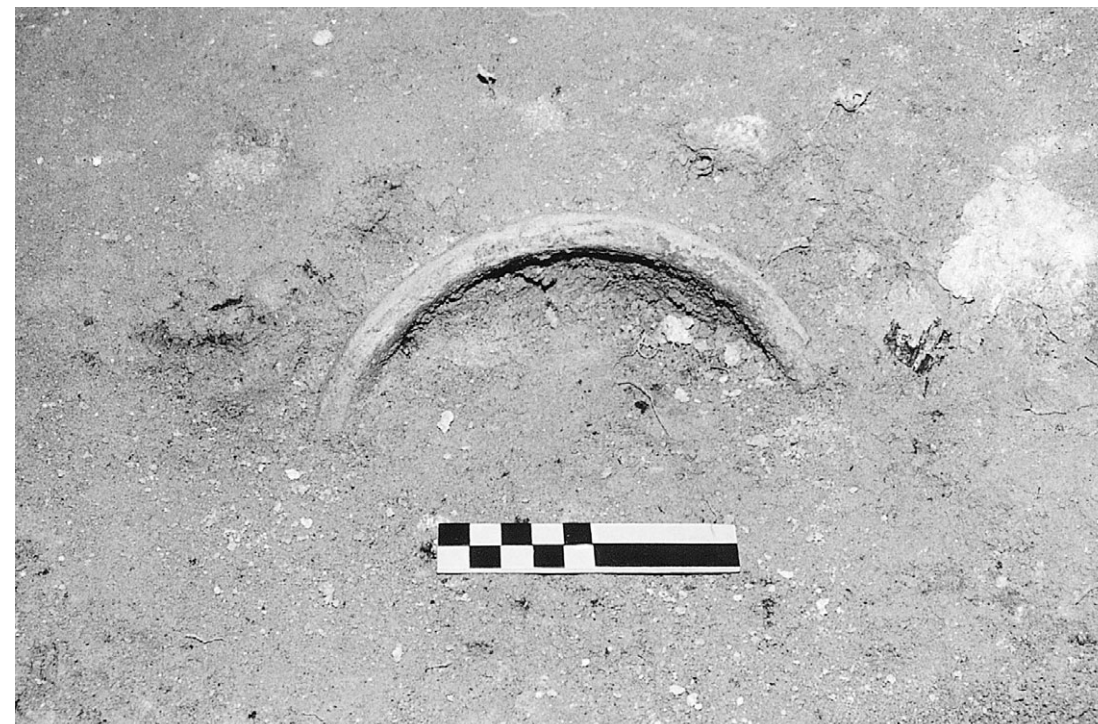


사진 16. A-I 구역 9호 주거지 유물 노출상태



사진 17. A-I 구역 11호 주거지 · 웅관 노출상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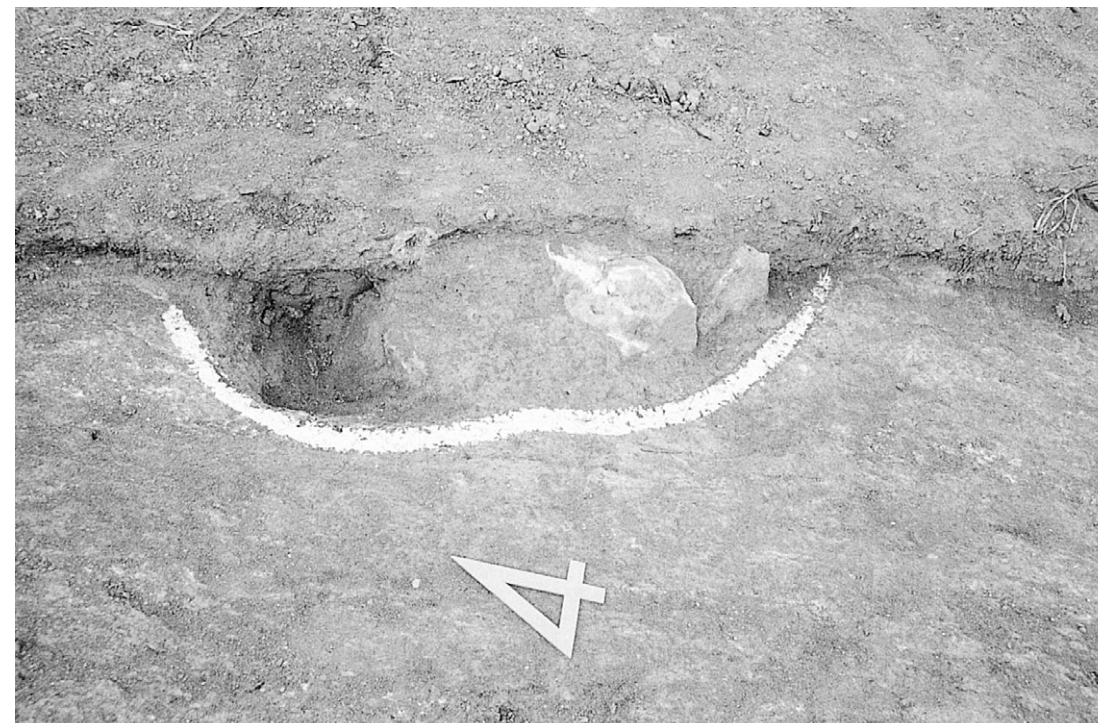


사진 19. A-I 구역 2호 저장공 노출상태



사진 18. A-I 구역 1호 저장공 노출상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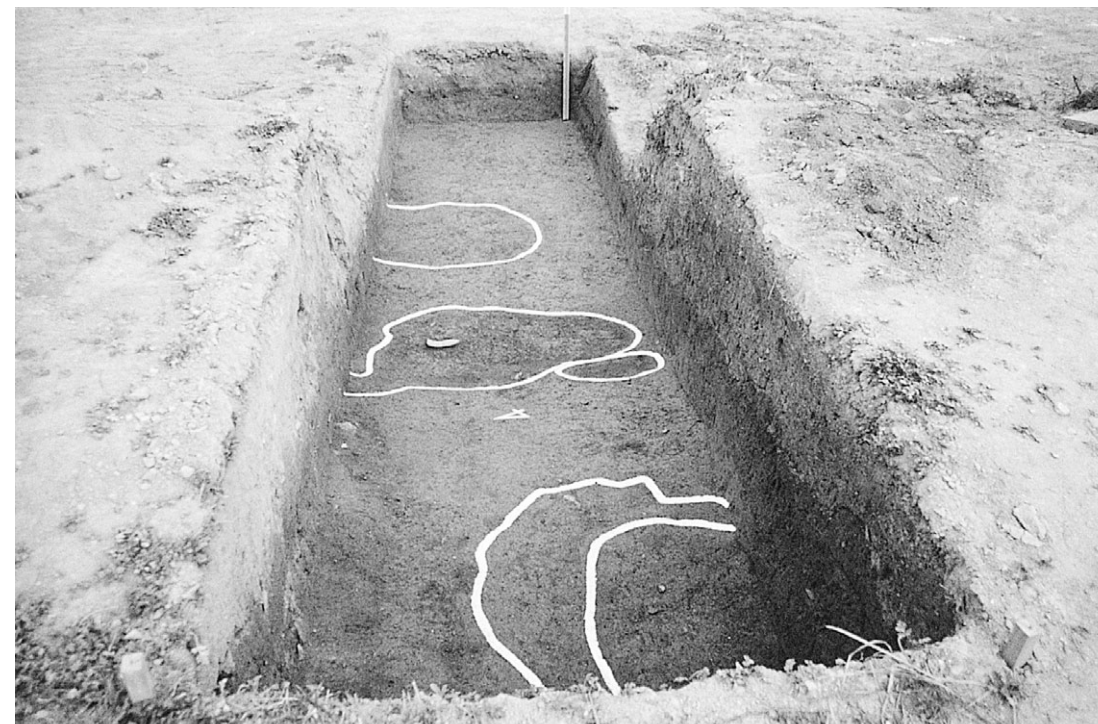


사진 20. A-I 구역 3·4호 주거지 노출상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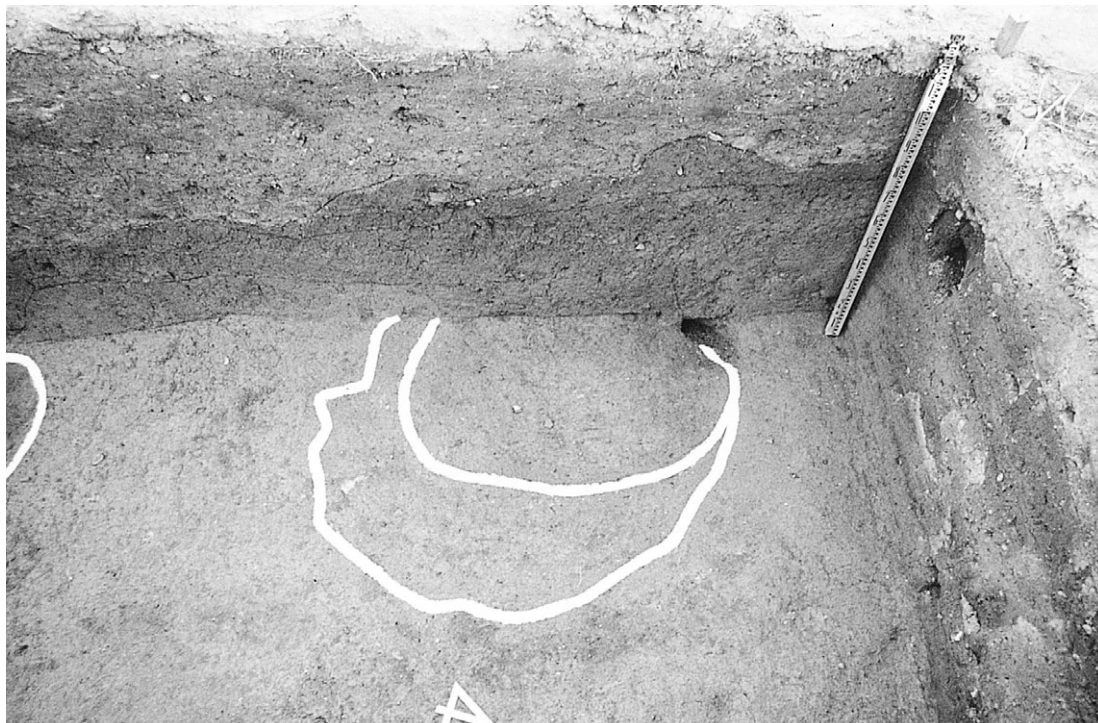


사진 21. A-I 구역 3호 저장공 노출상태



사진 23. A-I 구역 8·9·10·11호 저장공 노출상태



사진 22. A-I 구역 5·6·7호 저장공 노출상태



사진 24. A-I 구역 10호 저장공 굴광선 노출상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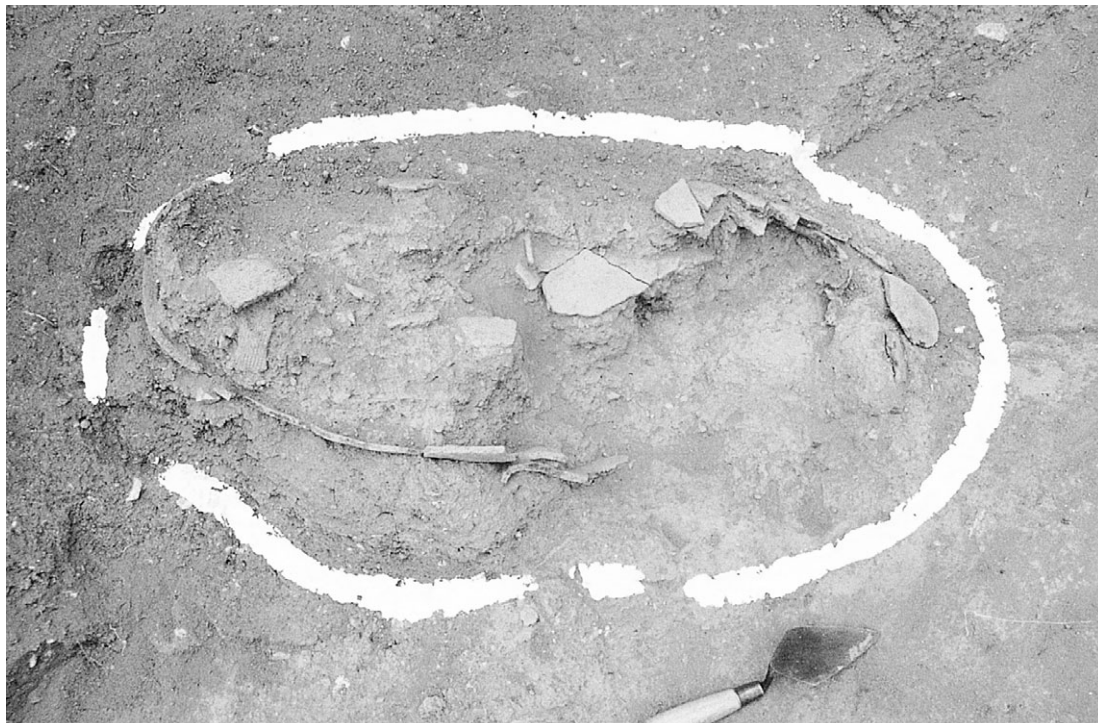


사진 25. A-I 구역 옹관 노출상태



사진 27. A-II 구역 1호 주거지 노출상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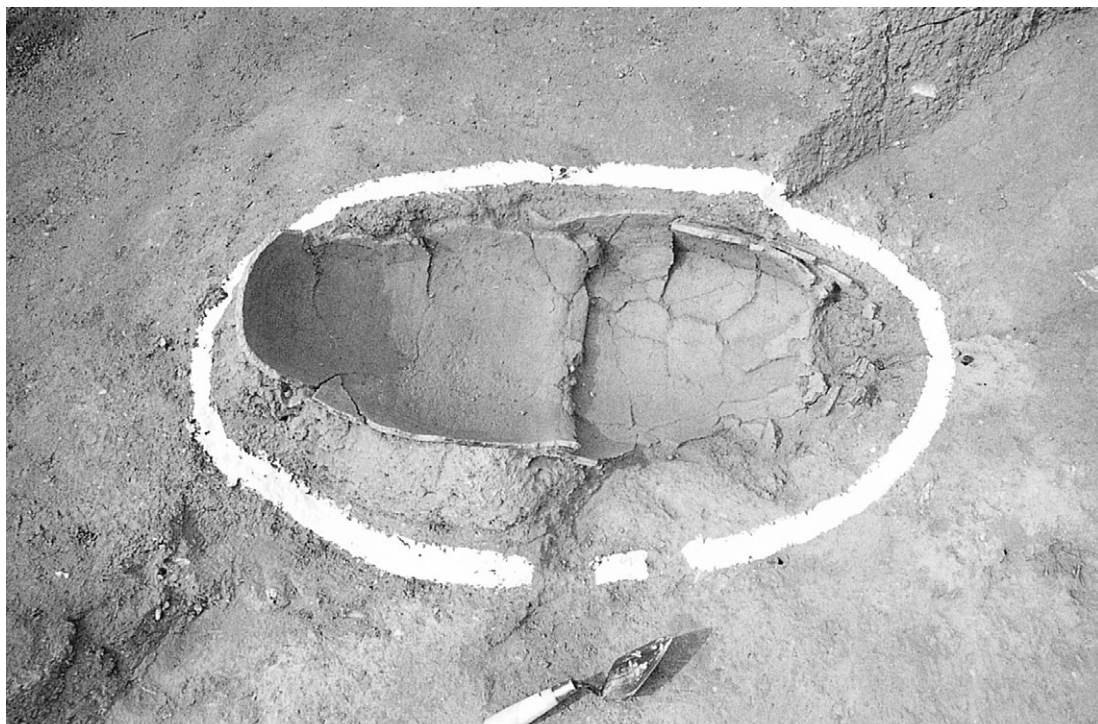


사진 26. A-I 구역 옹관 조사 후 노출상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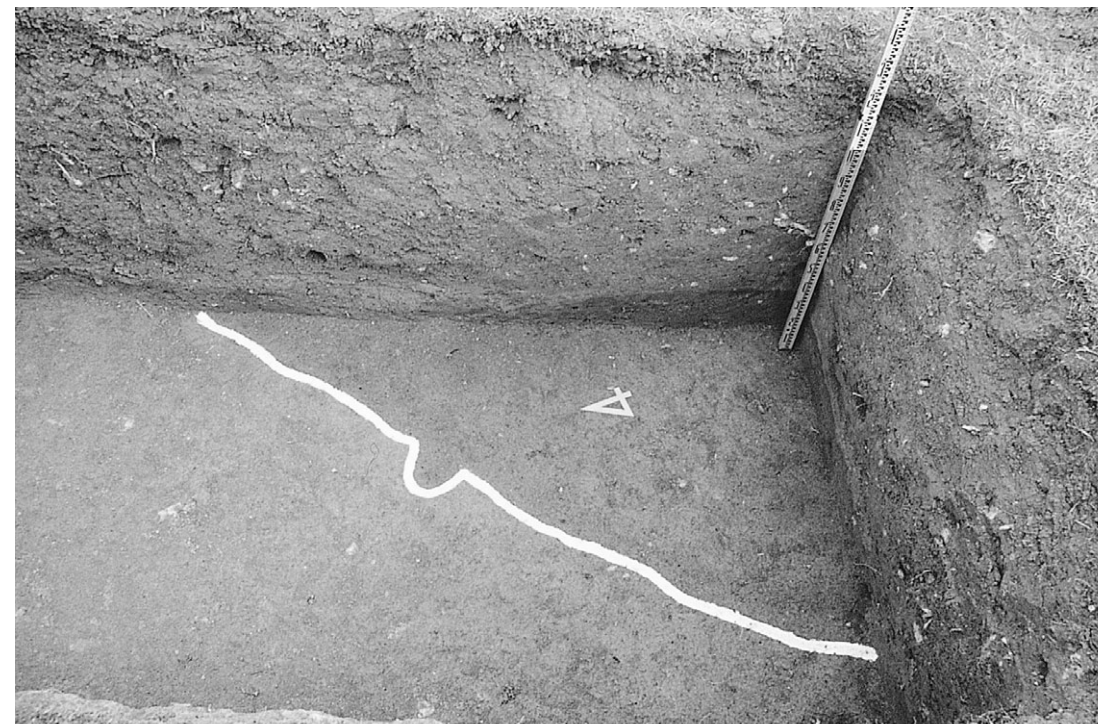


사진 28. A-II 구역 2호 주거지 노출상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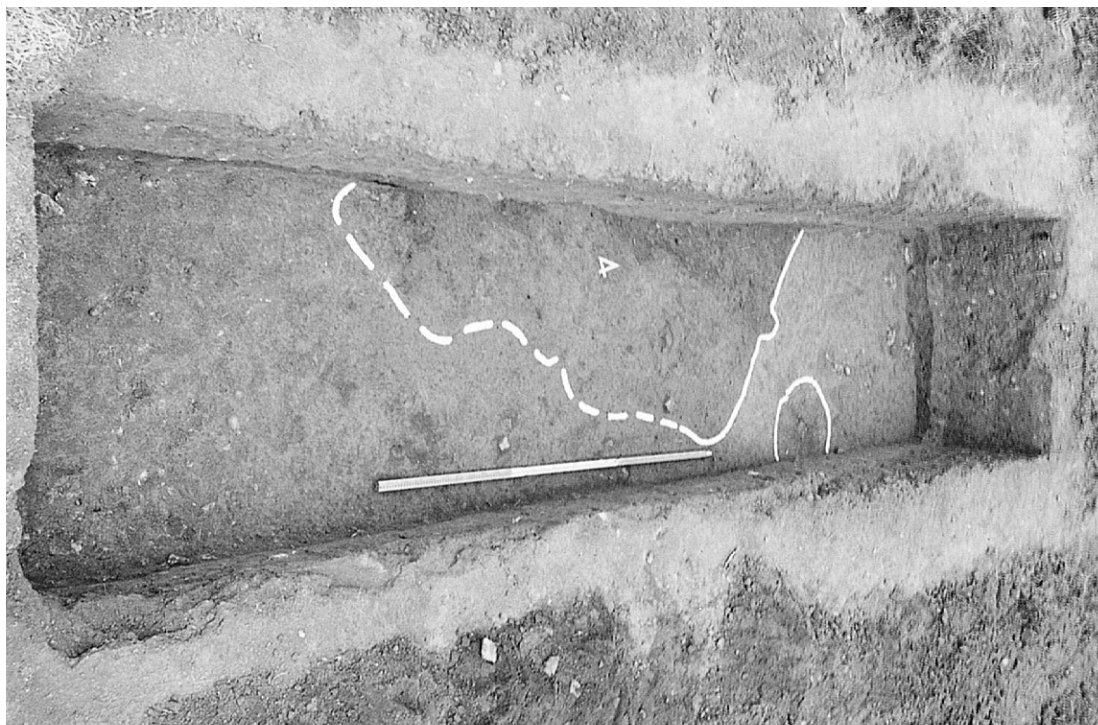


사진 29. A-Ⅱ 구역 3호 주거지 노출상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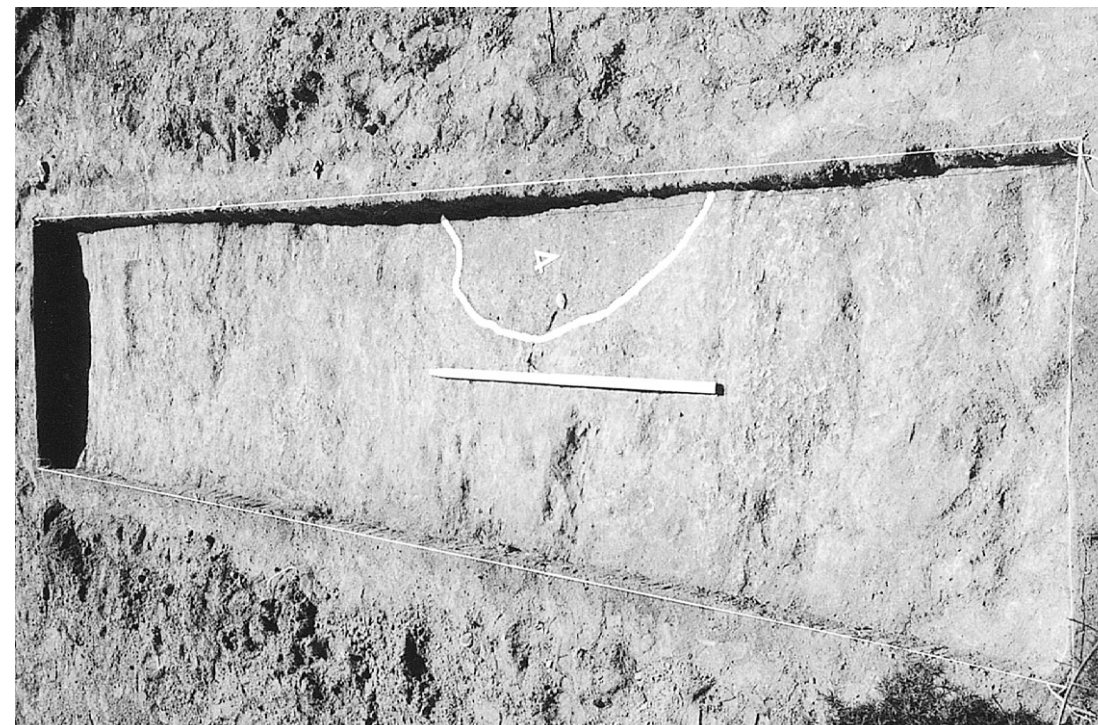


사진 31. A-Ⅱ 구역 1호 저장공 노출상태



사진 30. A-Ⅱ 구역 3호 주거지 굴광선 노출상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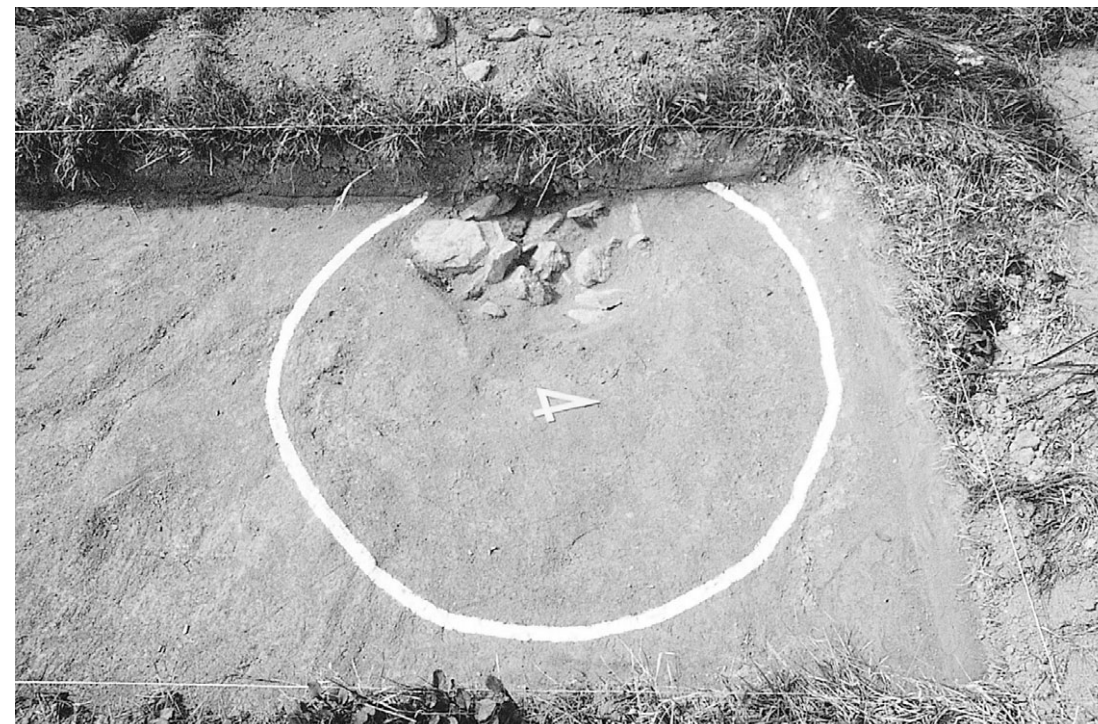


사진 32. A-Ⅱ 구역 2호 저장공 노출상태



사진 33. A-Ⅱ 구역 3호 저장공 노출상태



사진 34. A-Ⅱ 구역 4호 저장공 노출상태



사진 35. A-I 구역 S2E1 트렌치 출토유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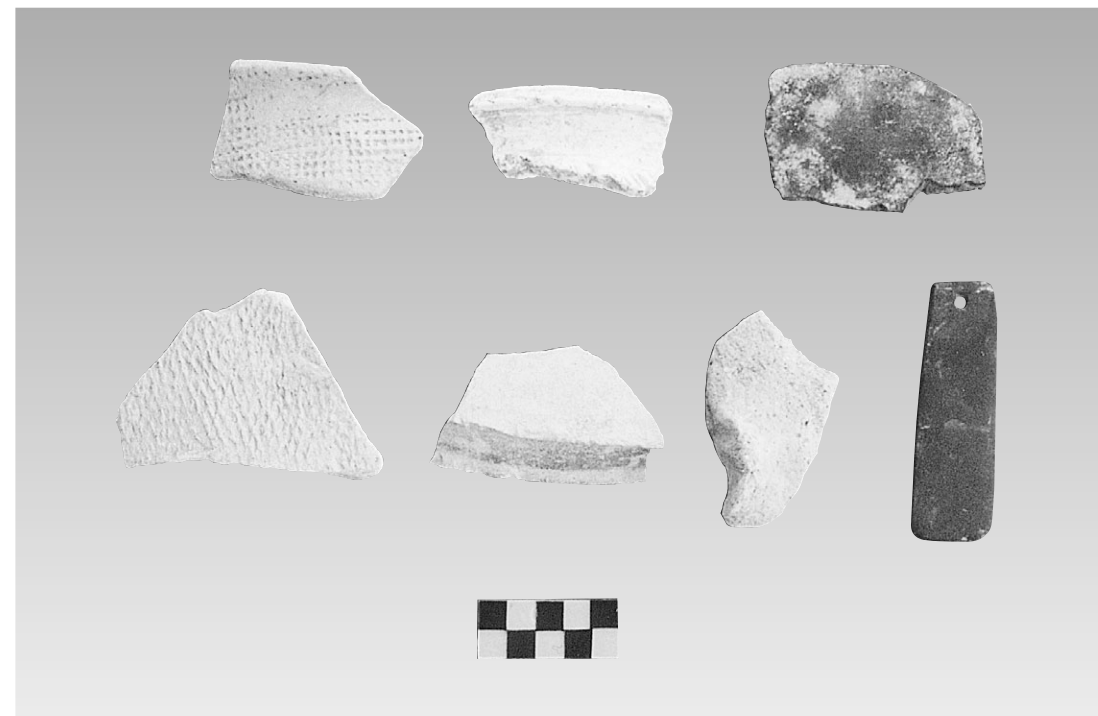


사진 36. A-I 구역 S2E2 트렌치 출토유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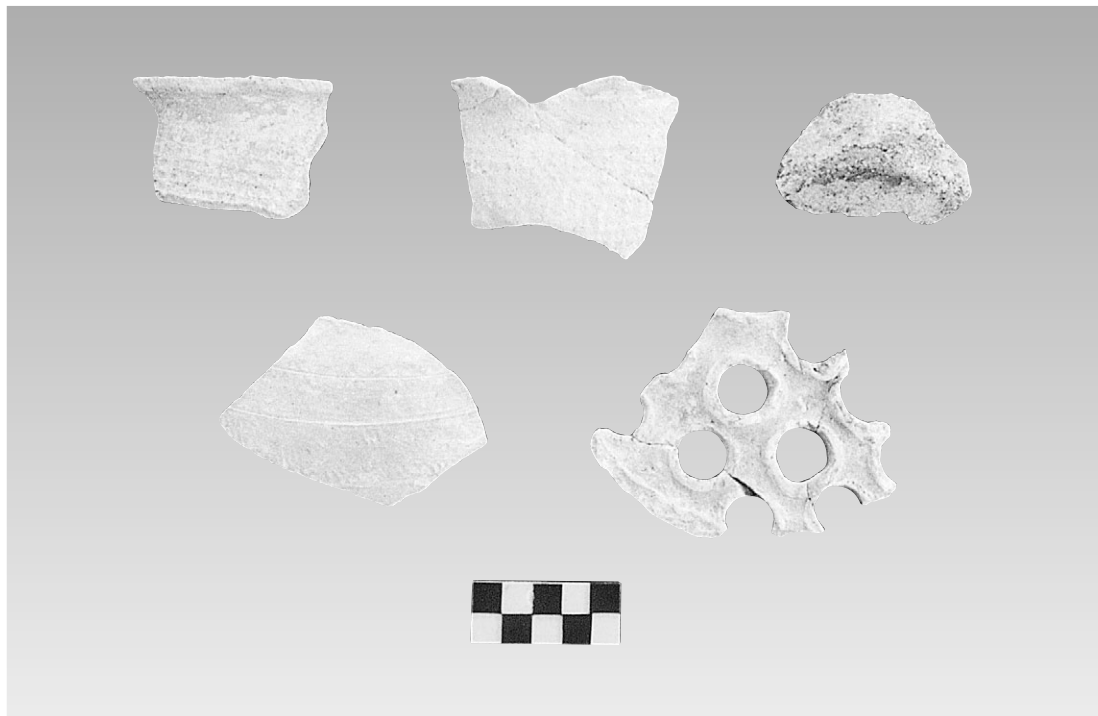


사진 37. A-I 구역 S2-S3E2 확장 피트 출토유물



사진 39. A-I 구역 S3E2 트렌치 출토유물



사진 38. A-I 구역 S2-S3E2 확장 피트 출토 기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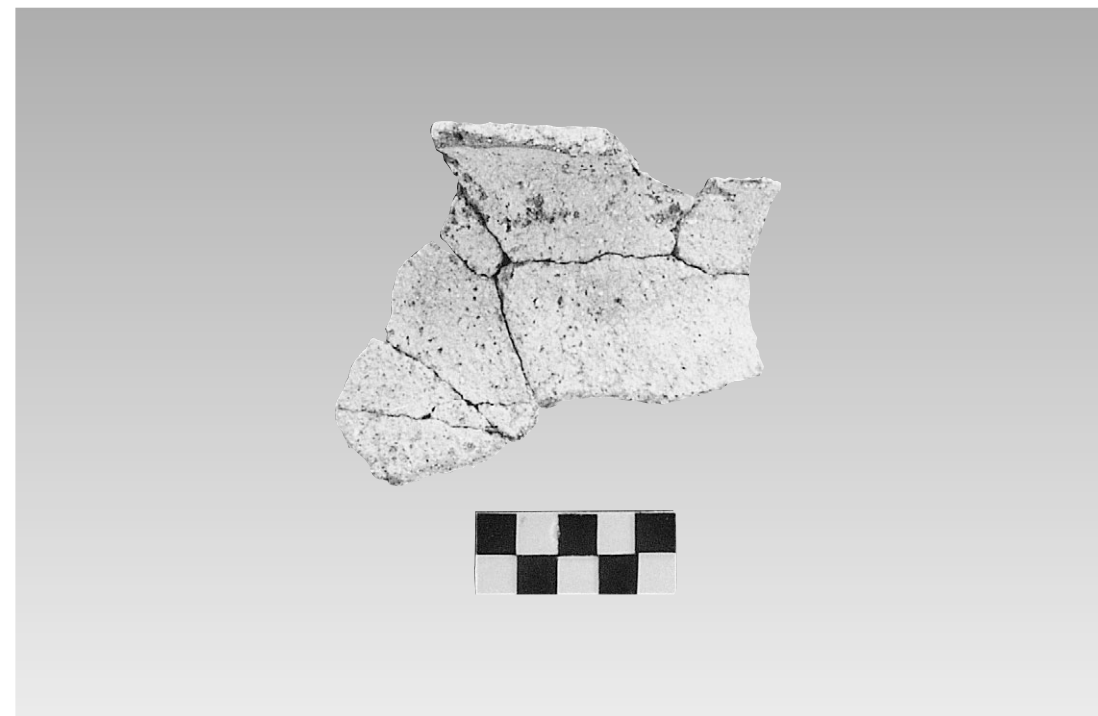


사진 40. A-II 구역 3호 주거지 출토유물



사진 41. A-I 구역 출토 옹관



사진 42. A-I 구역 출토 옹관(남관)



사진 43. A-I 구역 출토 옹관(북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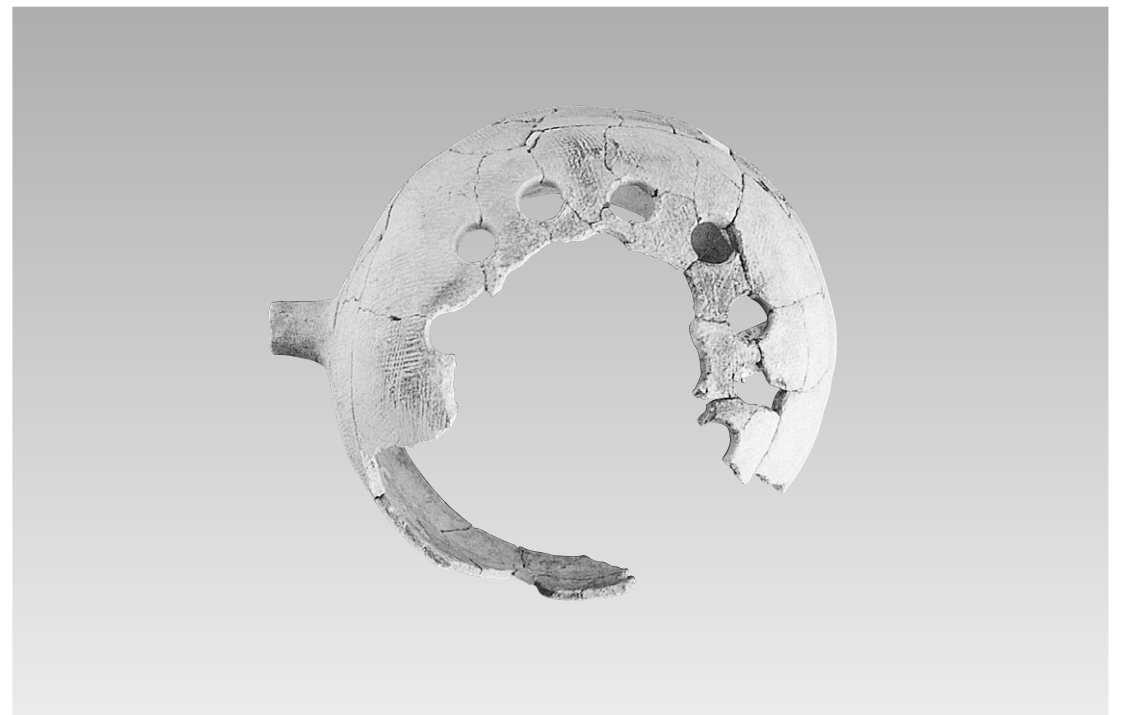


사진 44. A-I 구역 출토 옹관(북관 바닥)

調查報告書 抄錄

報 告 書 名	器興 舊葛(3) 宅地開發豫定地區內 遺蹟 緊急試掘調査 報告書		發行日	2000年 11月 30日
發 刊 機 關	名 稱	京畿文化財團 附設 畿甸文化財研究院		
	住 所	京畿道 水原市 長安區 長安洞 2-6		
	T E L	(031) 258 - 5105, 7	FAX	(031)258-7116
執筆・編輯者	金武重, 丁海得, 兪炳隣			
調 査 緣 由	京畿地方公社에서 推進하고 있는 器興 舊葛(3) 宅地開發豫定地區로 工事 施行 前 地形의 變更에 따른 文化遺蹟의 破壞를 未然에 防止			
調 査 擔 當 者	金武重, 丁海得, 兪炳隣			
遺 蹟 所 在 地	京畿道 龍仁市 器興邑 舊葛里, 駒城邑 上下里 一圓			
調 査 面 積	26,582㎡(約 8,049坪)			
遺 蹟 種 別	時代 및 年代	類型 및 基數	重 要 遺 物	特 記 事 項
遺物散布地	百濟 ~ 朝鮮	住居址 14基 貯藏孔 15基 甕棺墓 1基 灰槨墓 1基 民墓 2基	長卵形土器 深鉢形土器 甌(復原) 大甕片 蓋片 等	A지점 : 정밀 발굴조사 및 추가 트랜치 조사 B·C·D지점 : 공사시행

學術調查報告 12冊
器興 舊葛(3) 宅地開發地區內 遺蹟 緊急試掘調査 報告書
2000年 11月 30日 印刷 2000年 11月 30日 發行 編輯：畿甸文化財研究院 發行：京畿文化財團 附設 畿甸文化財研究院 京畿道 水原市 長安區 長安洞 2-6 ☎ 031)258-5105, fax 031)258-7116
印刷處：京畿出版社 住 所：水原市 八達區 人溪洞 1122-11 ☎ 031)231-5520~7, fax 031)231-5519

(비매품)